

암환자의 영성 개념 분석

-기독교, 불교, 무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미 라

암환자의 영성 개념 분석

-기독교, 불교, 무교 중심으로-

지도 이 원 희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미 라

이미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년 6월

감사의 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분주하신 중에도 학위 과정의 시작부터 기꺼이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늘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시며 지지해 주신 이원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사랑 어린 조언과 지도로 완성된 논문입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해 논문 지도를 기꺼이 허락하시고 늘 세심하고 성의 있게 지도해주신 Hesook Suzie Kim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년 중에도 열의를 가지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장순복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암을 진단 받고 항암제를 투여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면담에 응해준 사랑하는 친구의 깊은 우정에 고마움을 전하며 또한, 그 밖의 모든 면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칠 때마다 기도로 함께 해준 지구촌 교회 아미싱 식구들 모두와 서로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준 학위과정을 함께 했던 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김용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막내딸의 뒤늦은 공부를 늘 애달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 늘 성원을 잊지 않았던 오빠, 언니들, 동생에게 감사하며 특히 가까이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생을 지켜준 둘째 언니와 그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2년 6월

이 미 라

차 례

감사의 글

차 례 i

그림 차례 iv

표 차례 iv

국문 요약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II. 문헌고찰 4

A. 영성 4

1. 영성의 사전적 정의 4

2. 영성의 종교적 의미 5

3.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에서의 영성의 의미 11

B. 암환자 13

C. 간호학에서의 영성의 의미 16

1. 영성의 관련 개념 17

2. 선행연구 18

D. 영성의 작업적 정의 21

III. 연구방법	23
A. 연구 설계	23
B. 연구 대상자	23
C. 연구 절차	24
D. 자료수집 방법 및 면담질문	24
E. 자료 분석	25
F. 연구의 제한점	25
IV. 연구 결과	27
A. 연구 대상자의 특성	27
B. 사례진술	27
1. 사례1 : 강00씨	27
2. 사례2 : 김00씨	34
3. 사례3 : 김00씨	42
4. 사례4 : 김00씨	47
5. 사례5 : 정00씨	53
6. 사례6 : 황00씨	58
7. 사례7 : 우00씨	63
8. 사례8 : 육00씨	70
C. 현장조사에서 도출된 영성의 정의	76
V. 논의	79
A. 영성의 차원과 속성	79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	80

2.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83
3.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	84
B. 간호에의 적용	87
C. 연구의 의의	88
VI. 결론 및 제언	89
1. 요약 및 결론	89
2. 제언	91
참고 문헌	92
영문 요약	99

그림 차례

<그림 1> 암환자의 영적 측면	15
<그림 2>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차원	76
<그림 3>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차원별 속성	77

표 차례

<표 1> 문헌을 통해 파악된 영성의 차원, 속성, 지표	22
<표 2>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차원	76
<표 3>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속성	77
<표 4> 현장 단계에서 도출된 영성의 차원, 활성화요인, 속성 및 지표	78
<표 5> 재 정의된 영성의 차원, 속성, 지표	87

국문 요약

암환자의 영성 개념분석

- 기독교, 불교, 무교를 중심으로 -

간호학은 총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인간은 신체·마음·영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상호 작용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특히 암환자와 같이 신체·정신적으로 위기를 경험할 때 영적 차원은 보상기전으로서 더욱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간의 본질로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이론, 연구, 실무에서 영적 측면이 간과되어 왔다. 암환자들의 영적 고뇌를 이해하고, 그들의 영적 요구를 정확히 사정하여 적절한 영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적 간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영성'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에 있어서의 영성의 차원, 선행요인, 속성, 지표를 파악하고 암환자 영성을 재 정의하기 위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는 Schwartz-Barcott, Kim(1986)이 제시한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기독교, 불교, 무교를 가진 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성 개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암을 진단 받고 투병중인 30세 이상의 암환자로 항암요법을 받거나 질병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각 종교를 대표한다고 암병동 수간호사가 추천한 기독교 2명, 불교 3명, 무교(無敎)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병원 관계자의 승낙을 얻은 후, 2002년 4월초부터 6월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연구자의 연구의도를 밝히고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이론적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암환자 영성의 차원, 속성, 지표를 제시하고 작업적 정의를 내렸으며, 현장작업단계에서는 Schatzman, Strauss(1973)의 기록체계인 관찰기록, 이론적 기록, 방법론적 기록을 이용하여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자료를 조직화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사례별로 참여관찰기

특과 심층면담내용을 삽입하여 현장관찰을 통한 종교별, 사례별 암환자의 영성 차원에 따른 속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종분석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에서와 현장작업단계에서 파악된 암환자 영성의 차원에 따른 속성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종교를 비롯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른 영성 속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암환자 영성의 차원, 속성, 지표를 제시하고 암환자 영성을 재 정의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환자 영성의 차원

-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
-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

2. 암환자 영성의 속성

-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적이고 독특한 과정
- 절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
- 현실 초월성
- 내적 에너지 원
-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
- 미래지향성

3. 암환자 영성의 지표

1) 내면적 지표

- 사랑
- 절제
- 자기 초월
- 평안
- 자아존중

- 자기수용
 - 희망
- 2) 행동적 지표
- 용서
 - 기도
 - 종교적 실천
 - 기쁨과 감사의 삶
 - 이웃에 대한 봉사

4. 암환자 영성의 정의

모든 인간이 가진 본질인 ‘영’의 외적 발현으로서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성과 개인의 종교, 연령, 과거경험, 가족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독특하게 표현되는 절대자, 타인·이웃·외부환경,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며 현실 초월, 미래 지향,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하는 내적 에너지원이다.

이상의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를 통한 암환자 영성 개념분석을 통하여 암환자의 영성은 각 종교, 연령, 과거 경험, 가족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암진단과 전이라는 생의 고통 속에서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암진단과 질병의 악화는 영적인 위기인 동시에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계기임을 인식하고 독특하게 표현되는 각 대상자들의 영성을 정확히 사정하고 그에 적절한 간호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암환자, 영성, 개념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간호학의 대상인 인간은 단지 신체적인 몸과 영적인 혼(soul)으로만 구성된 이원론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총체적 본질로 이루어진 독특하고도 유일한 존재로서(Baldacchino, 2001), 몸(body), 마음(mind)과 영혼(spirit)이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변화는 서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인간의 영적인 차원은 각 개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협을 경험할 때 보상기전으로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Fish & Shelly, 1978). 즉, 영적 차원을 통하여 신체적, 심리·환경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초월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Seaward, 1991).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 차원에 대한 간호는 간호학의 핵심개념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차원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인간을 돌보는 전문직으로서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간호학에서조차 대상자들의 영적 요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또한,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서 건강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 영적인 부분을 삽입하여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 상태’로 재 정의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영적 건강이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대상자들에 대한 영적 간호는 간호사들의 선택사항일 수 없으며, 의무인 것이다(Ross, 1996).

특히, 삶의 위기와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암환자들은 영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므로 평소에 관심 밖이었던 실존적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며(Nagai-Jacobson, & Burkhardt, 1989), 현실에서의 진실된 의미와 적응전략을 찾는다(Taylor, Amenta, & Highfield, 1995).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암환자들은 다양한 영적 활동과 자원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적 요구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영적 간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된다. 암환자와 같이 실존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영성은 안녕감을 강화하고 개인의 대응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Reed, 1991), 자신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희망과 동기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역동적이고도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로서 작용한다(Goddard, 1995; McSherry & Draper, 1997; Golberg, 1998).

이와 같이 총체적인 인간을 돌봄에 있어서 개인의 영적 측면이 중요하고 의미 있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영적 간호의 기본개념인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의료인들의 이해와 인식부족에 따른 영적 개념의 추상성(McSherry, 1998), 심리적 영역과의 구별의 어려움, 종교적 개념과의 혼용 및 과학적 회의론(Elkins, James, Hughes, Andrew & Cheryl, 1988) 등으로 인해 간호이론과 연구에서도 영적 측면이 등한시되고 있으며 실무 간호사들 또한 대상자들의 영적 간호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Taylor, Amenta, & Highfield, 1995). 간호학은 실무에서의 총체적인 간호를 위해서 대상자들의 영성을 설명하고 증진시키기를 진정 희망하는가?

전인간호에 기초하여 대상자들의 영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적 간호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는 ‘영성(spirituality)’개념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를 수립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영성개념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들(Burkhardt, 1989; Howden, 1992; Meraviglia, 1999; 김강미자 & 이병숙, 1998; 오복자 & 강경아, 2000)이 수행되었으나, 이들은 서구 유대-기독교의 영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현장관찰 없이 이루어진 이론적 단계의 연구였다. 그러나 영성은 종교의 유무·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소유한 기본적인 것 뿐 아니라 개별적인 문화, 발달상의 삶의 경험에 의해 그 표현 방식이나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Farran, 1989)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유대-기독교적인 배경이 기본이 되는 서구에서와는 달리 무속·불교·유교적인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단지 기독교적인 영성의 개념만으로는 각 대상자에 맞는 최적의 영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영적 건강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영적 간호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론적 단계와 현장단계를 동시에 이용하여 개념을 분석하는 Hybrid model을 통하여 기독교, 불교를 종교로 가진 암환자, 및 종교를 갖지 않은 암환자에 있어서의 영성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서에서 암환자의 영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인에게 적합한 영성 사정도구의 개발과 영적 건강 측정도구의 개발 및 영적 간호중재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기독교, 불교, 무교에 따른 암환자 영성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암환자의 영성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여 영적 요구의 사정과 간호중재의 기초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한다.

- 1) 암환자 영성의 속성을 파악한다.
- 2) 암환자 영성 속성의 선행요인, 차원, 속성, 지표를 파악한다.
- 3) 기독교, 불교, 무교 암환자 영성의 선행요인, 차원, 속성, 지표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A. 영성

영성은 하늘에 보이는 구름과 비슷하다. 우리의 손에는 구름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가득 차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간호대상자들에게 있어서의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영성은 영의 가치에 근접한 것으로서 추상적이고 알기 어려운 개념이고, 특히 한국인의 영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영성은 복잡하다(장대현, 1999). 이러한 영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적 정의, 종교에 따른 영성의 의미, 철학·심리학·사회학·의학, 간호학에서의 이론과 연구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이론적 단계에서의 영성의 의미, 속성, 차원, 결과를 명료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1. 영성의 사전적 정의

영성(spirituality)은 라틴어 spiritus(spirit)로부터 유래된다. 새성경신학대사전(1999)에 의하면, 영(spirit)은 ‘비물질적 무형적 존재’, ‘나쁜 존재로서의 영’, ‘인간이 가지는 영’, ‘인간의 본질적 생명원리로서 통찰과 감정과 의지의 근원’으로서 설명되며, 성서대백과사전(1986)에서는 영(spirit)을 ‘정신활동의 근원이 되는 실체’, ‘신령하여 불사 불멸하는 정신’,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실체’, ‘참된 목적’, ‘사물의 근본’, ‘사람의 知·情·意를 움직이는 근원’, ‘육체에 생기를 주는’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철학대사전(1974)에서는 ‘영’은 ‘생기를 주는’, ‘원기를 주는’, ‘영감을 일으키는’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Webster 영어사전에서는 ‘인간의 영은 결코

죽지 않는 한 사람의 비물질적인 면'으로서 기술되고,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 예배, 기도 등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반해, 영성(靈性)에 대한 정의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승녕, 2001), '성령(性靈)'(이희승, 2001), '정신적임·초속성(超俗性)·숭고함·정신적 경향'(금성출판사 국어사전, 2001)이고, Webster 영어사전에서의 spirituality는 '인간의 영(spirit), 혼(soul), 마음(mind), 종교(religion)와 관련된 용어'로서 정의된다.

그러므로, 영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체적·물질적 요소보다는 정신적 부분에 관련하여 사람을 구성하고 육체에 생기를 주는 '영(spirit)'과 관련된 용어로서, 숭고하고 신령한 성질, 종교와의 관련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

2. 영성의 종교적 의미

영성과 종교의 개념은 자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사실상 그것은 똑같은 개념은 아니다. 신앙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종교는 영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믿음, 윤리적 강령, 예배행위 등을 강조하고, 이에 반해 영성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Cawley, 1997; Nagai-Jacobson & Burkhardt, 1989)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이며, 한 인격의 존재 곧 의지적, 감상적, 도덕적, 지적, 신체적 가치의 원리를 창출해 내는 삶의 원리이다(Liening, 1978).

이와 같이 종교와 영성은 서로 유사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겹쳐지고(Burkhart, 2001; Underwood-Gordon, Peters, Bijur, & Fuhrer, 1997) 깊은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영적인 적응에 대한 더 유용한 개념화와 그에 대한 측정은 임상현장에서 종교적·영적인 기능에 대한 보다 더 유익한 사정을 제공하게 되므로(Jenkins & Pargament, 1995) 종교에 따른 영성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대-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영성을 지닌 서구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신앙심인 무속과 그 위에 혼합된 불교, 유교, 기독교(유동식, 1985)를 종교로 하는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의 영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성경에서는 영성이

란 단어를 찾아 볼 수는 없다. 영(spirit)이 언급될 뿐이다.

구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루아흐(ruach), 신약에서는 헬라어 프뉴마(pneuma)가 문맥에 따라 ‘공기, 숨, 호흡, 바람 또는 영’으로 번역된다. 성경에서의 ‘영’은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창 1:2)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천사(히 1:7), 사탄(마 8:16, 막 1:23, 눅 11: 24)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에도 사용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관계하는 인간의 한 측면을 말할 때도 사용되었다(요 3:8). 이러한 인간의 영은 총체적 유기체인 인간을 설명하는 한 측면으로서 인간은 몸, 혼, 영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심사는 인간의 단편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피할 수 없는 관계성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인간의 영적 측면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영은 감정, 태도, 의지와 연계되어 사용되었으며 죄를 누우치게 하며(시 34:18), 확고하고(시 51:10), 의지가 있으며(시 51:12), 상하기도 하며(시 51:7), 거만할 때도 있다(잠 16:18).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인간의 영은 인간에 내재된 것으로 능력을 주는 면(비전성경사전, 2001)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한 인간의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인간의 주체적인 핵이며, 다차원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둘러싸거나 구성하는 자연·사회·동료인간·신과의 교통과 만남 속에서 창출해내는 전인적 생명의 약동이요, 반응이다.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간주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늘의 진리를 이 땅위에서 펼치고자 노력했던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행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인간의 관계성 형성 능력으로서 그 관계의 대상은 감각 현상을 초월하는 존재이고 명상·기도·예식·성경공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깊이 있게 영적인 삶을 개발하는 것이다(김경재 외, 1998). 간호학자 김후자(2001)의 Focus group study를 통한 영성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며, 영성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 가는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알아본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령 임재

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이며 결국 그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기독교에서의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자신·이웃·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전인(wholeness)으로서의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영성의 결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사랑,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이다(갈 5: 22-23).

영성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주로 쓰는 말이지만, 이 개념을 기독교적 개념으로 묶어 두지 않고, 그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종교에 관한 논의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윤원철, 1998). 불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은 낮은 개념이다. 불교는 흔히 구도(求道)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불교 인류학에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 존재 상태에 대한 설명만을 한다. 인간에 대한 불교의 기본적인 이해는 인간존재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 있고, 이 순환이 어떤 것이든 간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수행을 통해 고통이 없는 극락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결국, 불교의 인간에 대한 관점은 모든 인간은 부처와 같이 고행과 수행을 통해 극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명수, 1995; 이상준역, 2001).

불교는 상대주의를 중심에 놓고 절대주의를 주변에 놓는다(이원섭역, 2001; 이기영, 1999). 선(禪)은 돈(頓)·무소의(無所依)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교(敎)를 주변으로 밀어낸다. “불입문자(不立文字)의 세계”라고 말해지는 불교의 선(禪)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을 통한 지해(知解)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준거(準據)와 매개(媒介)를 부인하는 무소의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불교는 원칙적으로 무아설(無我說)의 입장에서 영혼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정토교 사상의 발흥과 함께 사후의 왕생 주체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둘러싸고 결국 영혼의 존재를 암암리에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종교학대사전, 2001).

한국의 불교는 Mahayana 불교의 한 주류이며, 한국의 전통적 민속종교와 도(Taism)의 혼합된 형태로 지혜보다는 공허·자비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많이 베풀수록 삶 속에서 더 큰복을 받는다고 보고 타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돕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적 불교는 구도를 얻기 위해 명상을 하기보다는 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권장한다(Lee, 1998). 또한, 한국불교는 조선건국과 함께

혹독한 박해 속에서 신도들을 포교하기 위해 무교의 많은 요소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삼신(三神), 즉 불교계통의 독성(獨聖), 도교와 무교 계통의 산신과 칠성신을 모시는 삼성각(삼신각)의 경우이다(최준식, 2000). 한국 불교인에서의 영의 개념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영이 구별되며, 영은 정신적 활동의 근원적 실체로서 영원 불멸하며 윤회하는 것으로 김후자(2001)는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불교에서의 영성은 구도(求道)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유교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더 나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갖가지로 교차하는 인간관계의 한 중심에서 실천을 하도록 가르친다. 유교에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자아의 개념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자아가 구성되며, 그 사회적 역할의 총체에 의해서 정의된다. 유교적 자아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개념과 매우 달라서 인간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삶이 상호작용하며 만나게 되는 장소 즉 연결마디이다. 인간의 사회적 역할과 도리를 강조하는 유교가 종교인가, 윤리적 가르침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유교는 종교라고 최준식(2000)은 보고하였다. 유교는 초월적 영역에 관한 가르침 또한 분명하게 전통을 이루고 있는데, 천상(天上), 지상(地上), 사후(死後) 세계의 개념과 조상들의 혼백을 받들고 예를 갖추게 하는 일 등이 그 예이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극진히 모시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관계에 대한 깊은 신앙의 표시가 아닐 수 없으며, 지상의 현실을 내려다보고 관장하며 심판하여 벌을 주기도 하는 ‘하늘’의 개념은 정의와 도리, 힘의 상징이다.

종교란에는 전체의 2%만이 유교라고 응답하지만, 한국인에 있어서의 유교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서,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실천적 유교주의자는 국민 전체 중 90%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최준식, 2000). 이러한 유교의 삼강오륜이나 효제 사상, 극기 복례하여 대동세계를 이루려는 참여적 실천도덕 지향성은 ‘삶’의 영성과 접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혜숙, 1996).

결국, 유교에서의 영의 개념은 조상들의 혼백, ‘하늘’과 연계하여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근원이며, ‘영성’의 의미란 교육을 통해 조상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간 신앙 중에서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토착종교현상을 흔히 무속(巫俗)이라고 부르는데, 무(巫)'라는 글자는 '여자로서 형태 없는 것을 섬기고 춤을 추어 신(神)을 내리게 하는 자'로 풀이되고 가무(歌舞)로써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게 한다는 뜻으로 여무(女巫)인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다(유동식, 1985). 무당은 종교적 직능을 수행하는 자로서,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대부분이 강신무(降神巫)를 몸에 모시게 되며 모시는 몸주의 종류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박수덕, 1999). 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신내림에 의해 신이 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 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성격도 변하게 된다. 그러나 윤리적 변화나 성화같은 것은 신내림 후에도 일어나지 않는다(장대현, 1999).

한국의 무속신앙은 한국문화의 지층을 이루는 불교, 유교, 기독교의 지핵(地核)이며 역사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민간신앙의 형태로 민중문화의 저변에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적 종교현상이다. 한국인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무속신앙은 한국인의 실존적 체험을 반영하고 있어서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무속신앙의 의례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이고 우주적인 종교성은 한국 종교 문화의 기본 토양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유동식, 1985). 한국 무속신앙의 대표적인 의례로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굿인데, 굿이란 '흉하고 험한 일을 물리치고 행운을 청하는 것'으로, 굿과 무당을 통해서 사람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들을 만날 수 있다. 굿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삶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한다고 장대현(1999)은 보고하였다. 또한 무속신앙 체계 안에서는 자연계와 인간 사회의 질서가 서로 교차하면서 자연의 요소들과 인간이 우주적인 친교를 이룸으로써 사회 안에 조화(harmony)가 확보된다고 본다. 무속신앙의 특성이 곧 한국인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듯이(장대현, 1999), 한국인의 마음 바탕에는 '기복'과 같은 무속신앙의 토대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 또한, 김후자(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한국적 무속신앙에서의 '영'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굿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굿을 통해 영을 하늘로 인도하며, 영은 에너지라 볼 수 있을 뿐 아

나라 영의 힘은 무한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요약하면, 한국인의 저변에 깔려 있는 무속신앙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으며, 무속신앙에서의 ‘영성’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을 하나로 연계하는 매개체로서의 무당이 지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무속신앙에서는 무당의 굿 행위를 통해 각 개인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며, 절대자(신)와 개인은 일대일 관계로 연계될 수 없고 오직 매개자인 무당의 영성으로 대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종교적 의미의 ‘영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본 결론은, 모든 인간은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절대자를 추구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보편성을 지니는 반면에, 그 절대자에 대한 의미와 절대자와의 관계성 회복 또는 절대적 가치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종교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영성의 개념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인들에게 일반적인 여러 종교에 있어서의 영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atheists)와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agnostics)이다(Burnard, 1988).

무신론은 신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부정이다. Simone de Beauvoir에 의하면,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자들보다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자가 없기 때문에 행동의 지침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결정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신론자들은 용서될 수 있다고 믿지만,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을 용서해야만 한다. 무신론자들은 신의 의미에 대한 개념을 간과한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요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의미를 발견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에서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세속적인 인본주의란 신에 대한 인식 없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일련의 믿음이다. 이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신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인간은 혼자라는 것이다. 혼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책임져야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연대 의무감을 가진다. 그

러므로 이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 도덕과 의미를 위한 것이다(Blackham, 1968: Burnard, 1988 재인용).

이에 반해, 불가지론자들은 무신론자들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가능성이 없거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만이 현명한 입장이며,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들의 토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Burnard, 1988). 많은 불가지론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지침을 여전히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며, 어떤이들은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의미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은 신(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들의 영성에 대한 문헌은 제한적이며 그들에게 영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에서의 영성의 의미

영성에 대한 대부분의 문헌은 용어에 대한 이론화 또는 개념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영성은 인간의 영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계속되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고 있다. 각 개인의 영성은 각 개인에게 독특한 개별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도된다고 볼 수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영성’에 대한 견해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둔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이 육체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고 보는 인간 이원론을 주장했던 플라톤(Platon), 데카르트(Decartes)에 반해, 에라스무스(Erasmus), 워치만 니(Watchman Nee)등은 삼원론을 주장했다. 3원론에서는, 인간은 영, 정신, 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은 성령과 악령이 작용하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이고, 정신은 영을 둘러싸고 있으며, 육은 인간의 가장 외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한다(이명수, 1995).

종교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였듯이, 신학에서의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 반응과 세계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강조하고, 종교적인 믿음

(beliefs)과 실천(practice)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써,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다(MacQuarrie, 1992).

이와는 대조적으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영성은 한 사람의 내적인 동기의 표현이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Pargament, 1997). 영성에 대한 심리학적인 관점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와 ‘그들은 어디에서 권위와 길잡이(guidance)를 찾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신적인 과정으로서(Farran, Fitchett, Quiring-Emblen, & Burk, 1989), 한 개인이 내적 조화와 자아실현을 얻기 위한 능력이며(Dombeck & Karl, 1987), 자신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폭넓게 설명하기도 한다(Muldoon & King, 1991). Helminiak(1996)은 마음(mind)의 보편적인 면(universal dimension)의 일부로서 영성을 설명하였다. 마음은 영(spirit)과 정신(psyche)으로 구성되고, 그것의 개념화는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자신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적인 것을 합한 것이다. 또한, Frankl(1963)은 그의 ‘인간 동기부여 이론’에서 신학적 사고와 심리학적 사고를 통합하여 보다 더 폭넓은 의미의 영성에 대해 언급했다. 즉,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각 개인의 의미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오직 영적 측면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특히 피할 수 없는 개인적 고통기간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사회학적 문헌에서는, 그룹을 연구함으로써 영성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다. 인간은 자신과 더불어 살고 있는 타인이나 그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과거에는 종교적인 그룹이 개인적인 영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나 현재는 내재적인 영성이 더 강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회학에서의 영성은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회적 도덕뿐 아니라 그룹의 영적인 실천으로서 표현된다(MacQuarrie, 1992). 사회학자 Moberg(1997)은 영적 안녕에 대한 연구에서 영성은 하나님, 자기 자신, 지역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에 대한 확신과 총체적인 통합성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의학에서의 영성에 대한 문헌은 제한되어 있다. 서양 의학은 1980년대 이후, 인간의 3가지 측면(정신, 육체, 영)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영적인 측면이 신체, 심리-사회적 변수들을 지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atch, Burg, Naberhaus, & Hellmich, 1998). Hiatt(1986)는 의학문헌에서의 영성이 신체·정신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영'이 마음과 육체 측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한 한 개인의 추구라고 결론을 지었다. 또한, 이명수(1995)는 인간의 질병은 자신, 사람들, 환경, 및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므로 치유는 인간의 구성요소(영, 정신, 육체), 자연, 하나님간의 화해를 통한 조화관계의 회복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다양한 학문적 의미의 영성이란, 인간의 구성요소인 육체, 정신, 영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체와 정신의 저변에 깔려있는 측면으로 한 개인의 내적 조화의 표현이며 자신, 타인, 환경, 절대자와의 화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 삶의 의미와 목적 발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B. 암환자

통계청(2000)의 발표에 의하면,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1위이다. 1999년 한 해 동안 85,551명이 암으로 진단 받고(보건복지부, 2000), 치료될 수 없거나 치료되기 어렵다는 고통 속에서 통증, 절망감, 죽음에 대한 공포,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다. 암이라는 진단은 삶의 위기를 의미하며, 암환자들은 전에는 관심 밖이었던 현실에서의 진실된 의미를 찾게 한다. 암진단으로 인해 자기 확신, 종교적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게 된다. 암환자들은 이전에 효과적이었던 대처전략이 부적절하게 되고,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이 암환자가 맞는 영적 위기로서(Highfield, 1992), 암환자들은 영성에 대한 민감성과 실존적 관심(existential concerns)이 증가되고, 적응전략으로서 종교의 이용이 증가될 뿐 아니라(Mickley, Soeken, & Belcher, 1992; Peteet, 1985; Highfield, 1995) 사랑, 희망, 존중의 영적 요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기순, 1991).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절망적인 암 진단을 받은 환자라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 삶의 경험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즉, 자기수용, 관계, 희망에 대한 영적 요구

를 충분히 충족시킨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질병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는 자아-empowerment가 영적 대응전략에 의해 강화됨으로써(Baldacchino, 2001), 암진단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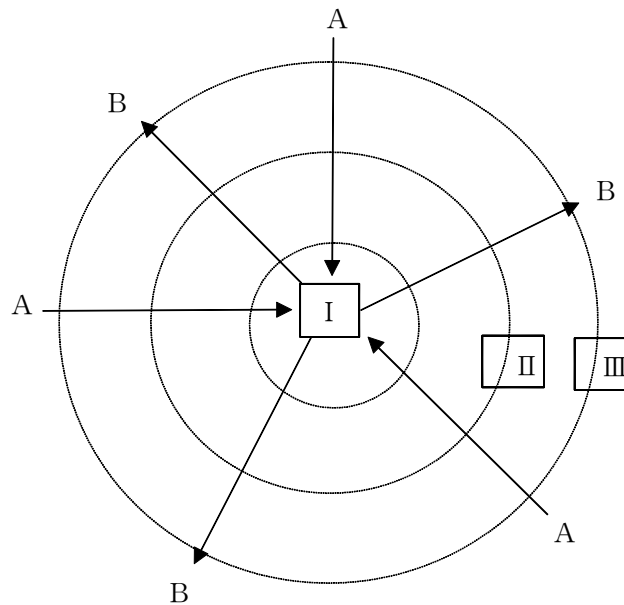
질병은 자아 성숙(self-growth)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 활성화 요인으로서 인식된다(Ross, 1995). 특히, 진단과 함께 ‘죽음’이라는 인간의 대명제에 맞부딪히게 되는 암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암 투병기간 동안의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Taylor, 1993)에서는 암환자가 암을 경험함으로써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높은 자아 존중과 내적 조절, 불안 감소, 증상완화, 사회적 의존성이 낮아졌으며, Germino, Fife, & Funk(1995)의 암환자와 그 배우자간의 비교연구에서는 암환자가 배우자에 비해 삶의 의미, 정서적 적응, 조절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원희(2000)의 말기암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암환자들의 영적 갈등은 표현방법도 다양하지만, 평안히 죽기 위한 기도와 살려달라는 기도를 동시에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심이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단편적이고 단순한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이고 총체적 의미의 고통으로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사회·영적 차원의 고통이다. 그들이 겪는 영적 고통은 인생의 궁극적 의미의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겪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암환자에게서 이 각 영역을 뚜렷하게 구별하여 사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말기 암환자들은 비록 기능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표정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길 원하며(McMillan, & Weitzer, 2000), 또한 실무에서 의료인들이 인식하는 말기 암환자의 주요관심사도 ‘영적(종교적)문제’, ‘정서적 문제’, ‘가족문제’, ‘실존문제’, ‘육체적 문제’ 순이라는 연구도 있다(조인향, 2001). 그러므로 암환자를 위한 간호목표는 그들의 영적 요구를 찾아내어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건강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데 있다. 암환자에게는 통증, 불안, 가족 붕괴 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회복 즉, 영적 안녕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이나 처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원인은, 영적 요구에 대한 암환자들의 지표는 단지 영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안, 우울, 분노, 가족 갈등 등의 심리-사회적인 면으로 쉽게 여겨질 수도 있어서, 간호사들이 인간의 연계된 측면 특히 영적인 면과 심리-사회적인 면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Doyle, 1992; Mansen, 1993). 이원희(1988)는 Stollwood, Stoll의 총체적 인간에 대한 모델을 근거로 하여 암환자의 영적 측면을 설명하였다(그림. 1).

<그림 1> 암환자의 영적 측면



- I. 영적 측면: 절대자에 대한 인식과 관계
- II. 마음: 의지, 정서, 도덕, 지적 감각, 자아정체성
- III. 육체: 오감을 통한 외부세계, 환경인지
- : 상호작용

<화살표 A> 암으로 진단을 받고 완쾌에 대한 확신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삶의 위기에 처한 환자들의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살표 B> 인간에게 주어진 개인의 선택의지에 따라 영적 요인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의지, 정서, 도덕, 지적 감각, 자아 정체성)과 몸(신체)에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측면은 육체, 마음과 분리될 수 없고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로서 각 측면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 이러한 양상은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암환자의 저변에 깔려 있는 영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영적 요구를 사정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돌봄으로써 그들 스스로 주어진 자유선택의지를 통해 암이라는 극히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간호사의 의무라 할 수 있다(이원희, 1988). 이를 위해 간호사들의 영성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개념간의 관계정립은 암환자들의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즉, 영적 성숙, 영적 관점, 영적 인식, 영적 경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Thomas & Retsas, 1999) 간호중재를 제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C. 간호학에서의 영성의 의미

영적 간호는 전인간호를 지향하는 간호학 이론의 중요한 핵심개념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차원이며(Ross, 1994; Taylor, Highfield & Amenta, 1994), 몸, 마음, 영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인간에 있어서 영성의 간과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영성의 강화는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영성에 대한 관심은 17세기 holistic health movement의 상징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Goodloe & Arreola, 1992).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대한 입장 변화로 더욱 영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기류는 국내외적인 간호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을 종교성과만 연관지어 영적 건강을 특정 종교를 가진 의료인이나 성직자만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기던 우리나라 간호계는 진정한 총체적 인간 간호를 위해 영적 간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1. 영성의 관련 개념

문헌에서는 영성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자주 나타나는 영성 관련개념과 영성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에는 영(spirit), 영적 요구(spiritual need), 영적 고뇌(spiritual distress), 영적 건강(spiritual health),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이 있으나, 이 개념들 간의 정의가 명확히 구별되기보다는 흔히 중복되고 있다.

‘영(spirit)’은 자주 육체에 생명을 주는 힘, 절대자와 연결시키는 요소·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 변화와 성장을 초래하는 창조적인 힘, 내적 자원의 근원, 역동적인 힘, 자신·타인 및 절대자와의 관계를 맺게 하는 힘 등으로 묘사되는 인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은 이러한 ‘영’의 질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며(Burkhardt, 1989), 종교적인 신념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인간 내적 자원의 총체이다(Stoll, 1989; Hiatt, 1986; Liening, 1978).

영적 요구(spiritual need)는 절대자와의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결핍된 상태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요구, 믿음과 신뢰에 대한 요구, 희망에 대한 요구, 사랑과 관계에 대한 요구 및 용서받고 싶은 요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인간은 종교를 갖고 있던지 없던지에 상관없이 영적인 요구를 지니는데(Doyle, 1992), 이러한 영적 요구가 삶의 의기에서 비롯되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영적 고뇌(spiritual distress)가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서 무가치감, 좌절, 공허감, 절망감, 소외감, 죄책감, 분노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NANDA(1978)에서는 영적 관심, 영적 고통, 영적 좌절의 하위 진단명을 체계화하여 간호진단 ‘영적 고뇌’로 명명하였다.

영적 건강(spiritual health)은 영적 요구가 충족된 상태로서, 인간이 자기 자신, 이웃 및 절대자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평안해지고 사랑과 기쁨, 평화를 누리며 활기가 넘치고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자기 성취적이며 충만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Hiatt, 1986). 이러한 영적 건강 상태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행동적 표현이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 상태이며, 내적 평화, 희망, 타인에 대한 동정, 생명에 대한 경외,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적 관계, 윤리적 행위, 긍정적인 자

아개념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영적 안녕은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종교적·영적 안녕감 등으로 특징화되는 수직적 차원과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계되는 실존적 또는 수평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aloutzian & Ellison, 1983).

또한, 종교(religion), 신앙심(religiosity), religiousness(종교성)의 관련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실제적으로는 영성개념의 구성요소로서 인식된다. 종교는 하나의 믿음체제로 집약적으로 영적 경험과 형식을 수행하는 이성적인 정신적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의미에 대한 개인적인 추구라기보다는 그룹을 의미한다. 신앙심은 개인의 지식, 믿음, 느낌, 실행을 포함하는 것이며, 종교성은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 실행, 지식·참여 정도이다.

종교는 영성 표현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 실행은 한 인간의 영을 낙심시킬 수도 있다(Burkhardt, 1989).

2. 선행연구

간호에서 영성은 중요한 개념이고 전인간호에 영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영성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영성은 인간을 활기 있도록 돕는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가치체계에 대해 배우고 이 지식을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Seaward(1991)는 주장하였다.

또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질적인 것으로, 의지적, 정서적, 도덕-윤리적, 지적, 신체적 측면을 포함하는 완전한 한 개인의 존재에 배어 나오고, 초월적 가치를 위한 능력을 생산해내는 삶의 원칙이며, 물질 영역을 초월하게 하는, 한 인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O'Brien, 1982). 또한 영성은 다른 사람과의 연합에 있어서의 행위뿐 아니라 개인의 모든 다른 면에 대한 표현이나 기능과 연관되고 통합되며,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와 다른 영역과 초월적인 관계를 통하여 표현되는 관계적 본질을 지닌다.

Burkhardt(1989)는, 모든 인간의 본성에 영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영성 개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영성의 속성은 ‘드러나는 신비(unfolding mystery)’, ‘조화로운 상호관계성’ 및 ‘내적 강인함’이었다. ‘드러나는 신비’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싸워나가는 삶에서의 신비와 불확실성을 다루는 경험과 초월성을 포함한다. ‘조화로운 상호관계성’은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조화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자신과의 조화관계에서 자아 존중감 및 자아실현이 나타나고, 타인과의 조화관계에서 사랑, 봉사, 용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내적 강인함’은 개인의 내적 자원, 의식, 자각 등을 포함한다. 결국, 영성은 종교적 믿음이나 실천을 통해 그것이 표현되든 안 되든 간에 한 인간의 본질적 핵심으로서 영적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 자체의 것’이다. 영성의 선행조건은 없고, 영성의 결과는 내적 평화, 기쁨,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 성취감, 내적 강인함 및 건강이라고 한다.

Howden(오복자 & 강경아, 2000 재인용)은 영성개념 분석을 통해, 영성의 속성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통합적인 관계성’, ‘초월성’을 제시하고 각각의 속성에 따른 경험적 준거를 제시했다. 이 연구를 통한, 영성의 개념은 ‘통합시키는 상호관련성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초월성을 드러내는 요소’이다.

김강미자, 이병숙(1998)의 영성개념 분석에 따르면, 영성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며, 주요 속성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존재 · 신과의 교통’, ‘자기 초월성’, ‘절대가치에 대한 믿음’이다.

Walker, Avante의 분석법을 이용한 오복자, 강경아(2000)의 개념 분석에 의하면, 영성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영(spirit)의 외적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성의 속성은 ‘조화로운 관계성’, ‘초월성’, ‘통합적 에너지’,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교사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오복자, 강경아(2001)의 연구에서는 그들이 도출한 이러한 영성의 속성이 확인되었다.

Dyson, Cobb, & Forman(1997)의 영성에 관한 문헌고찰에서 나타난 주요 요소

는 자신, 타인, God이었으며, 의미, 희망, 연계/관계성(relatedness/connectedness), 믿음(체계), 및 영성의 표현과 같은 개념들은 영성의 주요 세 요소와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고 하였고, Reed(1992)는 영성이란 한 개인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초월하는 영역에 대한 관계성을 통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Reed의 영성에 대한 정의에서는 초월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초월성을 자신을 향한 초월성(inward), 타인이나 주변상황에 대한 초월(outward),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한 초월성(upward)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Meraviglia(1999)는 기존의 영성개념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영성개념을 분석하였다. 영성의 선행요인으로는 생명과 영, 영성의 속성은 차원 높은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 자신/타인/절대자와의 ‘관계성’, 몸·마음·영의 ‘통합성’, ‘독특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제시하였으며, ‘관계성’은 기도로 표현되는 하나님이나 다른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인 수직적 차원과 자신·타인·자연과의 관계로 표현되는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영성의 결과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 희망, 자기 초월, 신체·정신·영적 안녕, 사랑, 신뢰, 창의성, 종교성, 건강을 제시했다.

간호학에서의 영성에 대한 정의는 전통적으로 서구 유대-기독교에 기반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영성이 서구적 관점으로만 여겨지는 경향을 비판(Chiu, 2000)하고, 영성의 복잡성에 대한 견해, 영성과 여러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개인의 종교와 무관한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이상의 간호학적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본 영성은, 모든 인간의 기본 본성으로서 간호가 총체적인 간호를 목표로 한다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의 에너지를 통합하는 핵심적인 힘, 자신·타인·자연·절대자와의 관계로서 외부적 환경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단계에서의 영성개념 분석의 결과는, 영성이란 절대자와의 수직적 차원과 사회·환경적 관계에서의 영성을 나타내는 수평적·실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관계성’은 개인

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성의 속성으로서 자기 자신, 타인·자연, 절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말한다. 두 번째 속성은 '초월성'으로,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과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속성은 한 개인의 '내적인 힘'으로서 인간의 신체, 정신, 사회적 모든 영역을 통합시키고 변화와 성장 및 힘을 주는 역동적이고 창조적 힘으로 개인에게 내적 강인함을 주는 내적 자원의 근원이며 원동력이다. 네 번째 속성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삶의 의미, 희망과 목적을 포함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감으로 보인다. 마지막 속성으로는, '독특하고 역동적인 과정'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 영성이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속성인 반면에, 각 개인의 종교·문화·삶의 경험 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어느 한 단계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속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영성의 선행조건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spirit)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영성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는 내적 성찰이나 자기반성, 질병이나 고난 특히 암의 진단을 통한 영적 자각 및 관계성 인식에 있다. 또한 영성의 결과적 요소는 희망, 신뢰, 사랑, 운유, 절제, 자기 초월, 건강, 종교성,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안녕 상태이다.

D. 영성의 작업적 정의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인간은 육체, 마음, 영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영'은 육체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절대자와의 관계를 맺게 하는 힘, 변화와 성장을 초래하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의 외적 발현인 '영성'은 종교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한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보편적인 개념인 동시에 개인의 종교, 절대자와의 관계, 절대자에 대한 믿음, 인간의 구성요소인 신체·정신·영의 측면을 통합하는 한 개인의 내적 본질과 관련되는 독특하고 역동적 과정으로 표현되는 다양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암환자의 영성은 삶의 위기, 영적 위기를 직면한 암환자에게 안녕감과 개별적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희망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직적·수평적·실존적 의미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자기 자신·이웃이나 자연·절대자와의 ‘관계성’, ‘초월성’, ‘내적인 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반영하는 독특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한 개인의 ‘영’의 경험과 표현이다. 이러한 이론적 단계의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헌을 통해 파악된 영성의 차원, 속성, 및 지표

영성의 차원	선행요인	활성화요인	영성의 속성	영성의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 차원 · 수평적 차원 · 실존적 차원 	영(spir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적 성찰 · 자기반성 · 질병이나 고난을 통한 영적 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성 · 초월성 · 내적인 힘 · 삶의 의미와 목적 · 독특하고 역동적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 · 온유 · 절제 · 자기 초월 · 종교성 · 안녕상태

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문헌을 통하여 확인된 영성의 속성이 암환자에게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각 종교의 영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찰하고 심층 면담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므로 이론적인 단계, 현장작업단계 및 최종 분석단계를 이용하는 Hybrid model을 이용하였다.

문헌을 통해 영성의 차원, 선행요인, 활성화 요인, 속성,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적 정의를 내렸다. 이론적 단계를 기초로 하여 현장단계에서는 대상자와의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자료와 관찰 기록, 이론적 기록, 방법론적 기록에 따른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자료를 조직화하였다. 사례별 자료로 영성의 속성, 차원, 선행요인, 지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통된 영성의 속성, 차원, 선행요인, 지표와 종교를 비롯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영성 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최종분석 단계에서 문헌과 현장에서 파악된 영성의 차원, 선행요인, 활성화 요인, 속성 및 지표를 비교하여 암환자에 있어서의 영성을 재 정의한다.

B. 연구대상자

현장단계에서의 대상자는 Schwartz-Barcott, Kim(1993)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종교별 3-6명을 원칙으로 하여, 암을 진단 받고 투병중인 30세 이상의 암환자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크거나 또는 어떤 종교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환자를 암병동 수간호사로부터 추천 받아 각 종교별(기독교, 불교) 또는 무교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 기독교 2명, 불교 3명, 무교(無敎) 3명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의로부터 암이라고 진단 받았으며 자신이 암이라는 진단명을 알고 있는 자
- 2)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의식수준이 정상인 자
-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면담에 응하기로 수락한 자

C. 연구절차

본 연구자는 2001년 4월-6월에 걸쳐 종교(기독교, 불교, 무속)에 따른 영성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한 40-60세의 3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성 개념 분석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도하였다. 예비조사를 기초로 하여, 각 개인의 영성은 고통이나 삶의 위기에서 더 잘 발현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고통의 정도가 가장 심하고 영적 간호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성 개념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D. 자료수집 방법 및 면담질문

자료 수집 방법은 면담과 참여 관찰을 이용하며, 면담 내용은 녹음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open ended question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체험과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암환자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 자녀들과의 문제,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염려나 걱정 등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질문은 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념의 선행요인, 속성,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헌고찰, 예비조사시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질문을 위한 구체적인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 2) 당신에게 있어서 영은 무엇이며,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 3) 당신이 종교(기독교, 불교)를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당신이 영적으로 충만(또는 불심이 깊어지는 것)하도록 하는 계기, 그 때의 느낌, 생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4) 영적 충만함(깊은 불심)이나 신앙적 체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E. 자료 분석

현장 작업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chatzman, Strauss(1973)의 기록체계인 관찰기록, 이론적 기록, 방법론적 기록을 이용하여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자료를 조직화하였다.

관찰기록은 면담과정을 녹음하여 수집된 기본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론적 기록에서는 연구자의 참여관찰로 원자료의 의미를 해석하여 기록하였으며, 방법론적 기록에서는 원자료를 읽으면서 질문에서 빠졌거나 응답 없이 지나친 부분을 기록하여 다음 면담을 위한 지침으로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각 사례별로 참여 관찰한 자료와 참여관찰과 관련된 심층면담자료를 삽입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별 결과 분석의 순서는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각 사례의 일반적 사항을 제시하고 대상자에 따라 영성의 차원별로 그 속성을 제시한 후 그에 따른 지표를 기술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현장자료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최종분석 단계에서는 문헌에서 도출된 결과와 현장연구 단계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암환자 영성의 선행요인, 차원, 속성, 지표를 제시하고 암환자의 영성을 재 정의하였다.

F. 연구의 제한점

1.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본 연구자 혼자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

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나 해석이 많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영적인 면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 깊숙이 내재된 내용이므로 대상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자연스런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된다. 다행히도 대상자의 대부분이 40대이어서 면담시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70대의 남자 이면서 내성적인 대상자의 경우엔 면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3. 한국인에 있어서 무속신앙이나 유교의 영향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종교가 무속신앙이나 유교라 자칭하는 암환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면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암을 진단 받은 후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례가 절반이상이어서 질병단계에 따른 영성 속성의 차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IV. 연구결과

A.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4명, 여자 4명이었고, 연령분포는 30대 1명, 40대 4명, 50대 1명, 60대 1명, 70대 1명으로 40대 절반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기독교 2명, 불교 3명, 무교(無敎) 3명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중졸 1명, 고졸 6명, 대졸 1명으로 대부분이 고졸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7명, 이혼 1명이었다. 암을 진단 받은 후의 기간은 1년 이내 5명, 1-2년 1명, 5년 이상 2명이었다. 또한, 처음 진단 받았고 전이되지 않은 환자는 2명, 진단시 전이되었거나 진단 후에 전이된 경우는 6명이었다. 진단별로는 유방암이 3명, 위암 2명, 폐암 1명, 혈액암 1명, 간암 1명이었다.

B. 사례진술

본 연구는 8명의 면담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과 참여 관찰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사례진술은 각 개인별로 분석하였으며 각 사례마다 연구자의 참여관찰결과와 면담내용을 기술하였다. 대상자를 종교별로 구분하여 기독교 2명, 불교 3명, 무교 3명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상자에서 관찰된 영성의 각 차원에 따른 사례에서의 특성을 서술하고 사례를 요약하여 활성화의 요인, 선행요인, 속성, 내면적·행동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1. 사례 1 : 강00씨

강00씨는 55세 여자로서, 1995년에 다발성 골수암으로 진단 받은 후, 8년째 치료받고 있는 상태이나 최근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일 대학 병원 호스피스 센터에

의뢰된 상태이다. 25년 전, 3살 된 아들 하나를 둔 채 이혼한 후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상태이다.

2남 3녀의 둘째인 강00씨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중학교 2학년 때 새엄마가 들어왔으며 새엄마와의 갈등이 심하였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왔으며 27살에 결혼하였다.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해 결혼 3년 만에 이혼하였고 하나뿐인 아들은 남편이 맡게 되었다. 그 후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아들을 데려올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으나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어졌고 또한 암을 진단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상태로서는 엄마의 존재를 모를 수 있는 아들을 위해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채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랜 투병으로 인해 가족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으며 단지 올케언니만이 가끔씩 왕래하는 상태이다. 강00씨는 암 진단을 받은 후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으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며 돈 버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4년 전 암이 더 악화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던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교회 옆에 방을 구해 놓고 신앙생활에 열중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번갈아 가며 돌봐주고 있고 있다.

연구자가 호스피스 센터를 통해 강00씨를 처음으로 만난 곳은 응급실이었다. 강00씨는 집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뼈에 이상이 생겨 입원하였으나 X-ray 촬영상에 골절이상은 보지 않아 퇴원예정인 상태로 응급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구자의 소개에도 별다른 관심 없이 흘려보냈으며 주위 사람들과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퇴원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자나 자원봉사자 없는 상태였기에 연구자가 퇴원 수속 등의 일을 도와주고 퇴원하기 전까지 2 시간 이상을 함께 있어 주었다. 또한, 호스피스 담당 간호사와 연락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게 연계해 드렸더니 퇴원 수속이 완료된 후, 밝게 웃으며 연구자에 대한 경계심 없이 집으로 찾아와 주변 좋겠다고 말했다.

3일 후, 환자의 단칸방으로 몇 가지의 밑반찬과 음식, 꽃 한 다발을 사들고 방문했다. 반갑게 맞이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해 고통스럽다고 했다.

2차 면담 한 달 후, 강00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센터로 거처를 옮겨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관계도 완전히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며칠 간의 생활을 한 후 사망하였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1) 절대자와의 관계성 인식 · 관계의 회복, 역동성

강00씨는 진단 받은 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내다가 서서히 변화된 경우로서 암 진단과 전이, 전신적 약화를 계기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회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질병의 원인과 목적을 찾으려 하였다.

“암진단을 받고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멀어야지 하는 마음은 갖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남들에게 피해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왔는가 하고... 하나님 한 번 물어봐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목적이...”,

그러나, 그 후 다시 별다른 변화 없이 경제적인 풍족함을 위해서만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다. 4년 전, 강00씨는 전이된 유방암을 치유해주시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냥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왼쪽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 자리를 짚어보니까 뭐가 뭉켜 잠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짚어보니까 덩어리가 잠혀지는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더니 입원해서 수술하래요 ... 그 날 저녁에 교회에 갔죠. 가서 울며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리고 그 날 새벽에 영적 체험을. 그러니까 콩알만한 씨를 5개 보여주시더라고요. 크지도 않아요. 5개를 보여주는데 정말 뭐랄까.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여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그걸 내 손안에 딱 영키게 맞들어요. 힘을 딱

주니까 딱 빼게 뺏드시더라고요. 5양을 빼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빼내주시는 거지요. 수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내 손을 뺏겨서 수술을 하신 거죠. 빼내고 나서 뺏겨보니까 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강00씨는 절대자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성의 회복을 통하여 그 분과의 보다 더 깊은 관계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강00씨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기도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분에게 더 의지하고 싶고 그분에게 더 다가서고 싶고...”

(2)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 초월

투병이 오래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며 암의 악화에도 크게 걱정은 안 된다고 한다. 또한, 각 조직으로 암이 전이되고 이에 따른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 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한다.

“병원 생활 한 4년하고 나니까 몸집이 떨어져 갔어요. ... 거기서 스트레스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낡한테 뺏겨 써보진 않았어요. 그대 걱정 안 해요.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더라고요. ... 지금 이쪽으로 저쪽으로 암이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난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제가 아파서 문부걸 칠 칠 때 하나님 알아프게 해주세요 하면 진짜로 안 아픈 것 같아요.”

(3) 자아의 초월, 내적 에너지원

면담 도중에도 표정은 통증으로 인해 밝지 못하지만 불안해하거나 불안정하지는 않는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는 가족의 지지 없이 지내면서도

끝까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든지 초조하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금세 내 생각에는 낯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오직 그냥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다.”

강00씨는 암의 진단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였으며, 암의 악화는 그 관계성이 조화로운 관계로 회복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관계성은 영적 체험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으며 기도를 통해 깊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회복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상을 초월하였으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내재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의 영성 속성을 보였다. 즉, 강00씨에서 보이는 영성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 주체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2)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차원

(1) 이웃과의 초월성 결여

강00씨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그 밖의 외부적인 상황은 잘 수용하고 초월하지만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성에 기반 하여 타인과의 신뢰와 화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00씨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강00씨는 교회 식구들과 올케언니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의 속사정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싶으며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기도하면서 다 얘기하죠. 사람들에게는 잘 안되요. 부끄럽고 추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모든 인간과의 관계와 모든 일도…,”

오직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아직 안되네요.”

(2) 조화로운 인간관계 결여

강00씨는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힘들었다고 말하며 어려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와 갈등이 심했다고 한다. 연구자가 집으로 환자를 방문한 날이 마침 그 새엄마의 장례식 날이었는데 지금은 그 분이 용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전 남편으로 인해 힘들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강00씨는 전남편을 용서하기 어렵다며 목이 메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 후에 새언니가 오셨어요. 그 분도 용서가 잘 안되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분은 용서가 되었. 그런데 그 사냥은 …. 금세 용서가 안 되었 …. 이제 기도해야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해줘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강00씨는 용서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며,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머쓱해한다.

강00씨의 관찰을 통하여 자신과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매달릴 뿐 그 관계에서 스며 나오는 이웃사랑이나 용서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00씨는 새엄마와 전남편으로부터의 상처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한 상태로 보이며, 특히 전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인간관계 양상을 보인다.

3)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

(1)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한 소망

강00씨는 자신의 존재의미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더 살게 해 주신다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저를 보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를 아프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분을 더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항상 그 분을 갱증하면서 그 분을 사랑하고 싶고 저는 그전 것 밖에는 없어요.”

강00씨 사례의 독특성은 가족이 없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자신의 현 상태나 고통, 통증에 대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욱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강00씨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욱 크게 생겼으며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쁨과 감사가 인간관계나 생활 속에 접목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는 기쁘고 감사하게 되며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읽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는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말하면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

강00씨의 영성을 요약해보면, 암진단 후 몇 개월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인식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암이 전이되기 전까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현재 강00씨는 하나님과의 연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분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회복한 상태로 보이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고난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하는 전 남편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이웃과의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강00씨에 관찰된 영성은 타인, 이웃, 외부환경과 관련된 차원보다는 절대자와 관련된 차원과 삶의 의미 추구와 관련된 차원에 더 치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 단계에서 제시된 관계성, 초월성, 내적 에너지원, 삶의 의미와 목적의 속성이 모두 관찰되었지만, 관계성의 측면에서는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한

정되었으며 인간관계에서의 조화관계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초월성의 속성에서는 절대자와의 위를 향한, 또한 내재적인 초월개념은 관찰되나 주변상황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초월성은 엿볼 수 없었다. 특히 강00씨의 영성에서 볼 수 있는 독특성은 모든 영성의 속성은 절대자와의 관계성에 기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의 역동성은 기도, 영적 체험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00씨에게서 관찰된 영성의 지표는 하나님 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감사와 기쁨, 기도와 성경을 깊이 있게 읽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례 2 : 김00씨

8살, 4살 된 두 딸의 엄마인 35세의 김00씨는 첫 면담 9일 전인 2002년 4월 8일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4일 전에 왼쪽유방의 완전 절제술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대학 때까지 성당에 일요일마다 나갔으나 그 이후에는 거의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째 아이가 심하게 아팠을 때나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 할 때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하루하루 생활에서 분주하다 보니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병원을 경영하는 가정적인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별다른 걱정 없이 지내왔으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오후에는 고종 사촌언니가 집안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이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어서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김00씨는 시댁식구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어서 암진단 받기 5일 전에 시댁식구들과의 외국여행에서 돌아왔다고 한다.

김00씨는 암진단을 받기 약 1달 전에도 문득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잊고 있었는데 암으로 진단 받은 다음날부터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현 상태를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표정이 밝으며 암에 대한 부정이나 감정적인 분노 없이 평화롭게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수용하고 있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1)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절대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분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암이라는 삶의 위기를 잘 수용할 뿐 아니라 암진단으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는 모습이 김00씨에게서 관찰되었다.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런 건 있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남편은 북쌍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도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은 정말 안 들었어. 그 다음날에 느낀 거는 나를 정말 사랑 하셨구나.’”

(2) 고통 속에서 더욱 절실해지는 역동성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괴로우면 때 더 충만해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더 갈구하니까. 내 안에 계시지만 항상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려울 땐 더 갈구하고 찾고. 물론 기쁠 때도. 그것보다는 어려울 때 절대적으로 찾게 되지.”

김00씨는 웃으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처럼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가 인천번에 생각하게, 내가 아무런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들 것 같다. 속으로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이거는 나한테 기적을 주신거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굳건히 해 주실 수 있을까 그거는 기적이다. 성령의 충만이다.”

(3) 초월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은 육체적인 통증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영적인 측면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라고 주장한다.

“육체적인 통증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냐. 수술 받는 고통? 항암제론 받을 고통? 그것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냐. … 삶과 죽음의 어떤 기호에서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안됐지. 영적으로 더 적실하고, 완전히 그것이 전부였지.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마취하고. 그건거는 두렵지가 않더라고 ….”

결국, 김00씨는 암진단이라는 극히 부정적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인생 경험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영성이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김00씨의 영성은 사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차원

(1) 인간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이전에 겪지 않았던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성은 타인에게도 전해져 평소에 불목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도…. 용서 못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지. 사실은 아주 저주할 정도로 미워한 것은 아니더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지. 특히 우리 애 바 주시는 이모님. 우리 큰 고모의 딸인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든. 그래서 오후에 아이들 돌보고 집안 정돈도 해달라고 했지. 고맙다고 느끼면서도 항상 불쌍스러

은 거야. 가깝씩 찢터라구. 내가 경제적이든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만큼 내게 언니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면 서운하구. 또, 다른 데서 일하면 그렇게 안 할텐데 늦게 오고 해서…. 근데 그거마저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2) 이웃 사랑

2차 항암요법을 위해 재입원한 김00씨는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신이 암진단 후에 경험한 것들에 대해 다른 환자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돌보면서 오심, 구토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겁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김00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루 원래 계획보다 하루 일찍 입원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시네. 어젯밤에는, 밤새 열이 나서 한숨도 못 자는 옆방 환자 곁에 있었어. 우리 언니가 나도 환자라고 야단을 하셨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 환자를 행복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옆에 있어 줬지. 그 환자는 새벽에 열이 내리고 잠이 들었어.”

또한, 김00씨는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함으로써 한층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야. 혼자 있을 때 보다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그렇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김00씨에게서 관찰된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은 절대자 하나님과 관련된 수직적 차원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기초로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후차적인 차원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목관계를 해결하고 용서하며,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성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

(1) 고통에 대한 의미부여

김00씨는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받아들이기 좋을 만큼의 고통만을 주셨다고 감사해 한다. 만약 자신이 백혈병이나 치유하기 어려운 암이었다면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르며, 현대 의학기술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다면 자신의 힘으로 해 보려고 노력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암을 진단 받지 않았다면 못 느꼈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확신하게 됐냐면 맹장이나 단순한 골절이거나 균방 수술만 하면 낫는 그런거로는 우리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애. 그래도 암정도는 되야지. 암정도는 되야지 가족들이 놀라고 하나님한테 달려가고. 더 쉽게 다가가고. 그리고 또 생각할건 암이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한치육이 낫다는 가슴에 있었다는 게. ”

김00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도의 불안 없이 차분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거잖아. 이 상태를 감사할 줄 알고 너무너무 담담해지고. 병에 대해서 어떤 걱정보다는 적응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겠다. 나를 지켜주시니까. ... 하나님이 나한테 에너지를 주신거지. 암진단 받던 날도 울긴 했는데 부인은 안했어. ... ‘왜 나일까’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헤쳐 나갈까...”

(2) 삶의 목적과 역동성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현재 상태와 상황을 넘어서서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스스로도 놀라워한다.

“교회나 성당의 어떤 회의나 모임이나 참여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임무를 해보고 싶어. 그런 단계까지. 내

가 앞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앞서 가지고 그런 일까지. 마음이 바빠진 거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김00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암의 수술, 항암제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경험이 결국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이라고 얘기하며 항암제를 맞고 있다.

“나와 같은 고통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변화를 통해 전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봐.”

또한, 암 진단과 함께 자신의 삶의 방향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답 대해 진다며 피식 웃는다. 그러나 간혹 공포가 밀려오기도 해서 그 때마다 잠을 잘 수 없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나 하나를 지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시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정말 가슴에 딱딱 닿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안나와. 땀땀해지고. 그치만, 사이사이에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거는 있어. 그때마다 잠을 잘 수 없기도 해.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지. 다시 마음이 바빠져. ... 앞으로의 내 삶은 우리 가족밖의 특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외에, 김00씨에서 나타난 영성의 속성은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암이라는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를 통하여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변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암진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신, 타인과의 불목관계에서 화합과 사랑을, 자신과 가족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폭넓은 삶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고통의 참된 의미를 찾음으로써 자신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 삶을 재조직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00씨에서 관찰된 영성의 지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모습이었으며, 행동적 지표는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다. 김00씨는 이전에는 쑥스러워서 타인에게 전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만 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한 표정도 함께 밝아진다고 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행동적 지표로는 기도생활, 교회 생활, 종교적 실천, 절제된 생활로 나타났다.

“일단은 표정이 밝아지지. 말하는 것도 틀려지는 것 같아. 그담에는 마음이 안정되니까 표현하는 것도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자주 한시라도 전하고 싶고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얘기하게 돼. 내가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 한번도 제대로 못해보고 식사 기도할 때 습관이 있어서 자주 식사기도를 빼먹었는데 …”.

“당연히 외부적으로도 변화해야 영성 깊은 사람이지. 영성 깊은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생활. 기도생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생활 … 절제된 생활. 돈이 있다고 돈을 펄펄 써대기 보다는 좀 절제하고 남을 위해 쓸 줄도 알고 그런 생활.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 좀더 생각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 아픔을 좀 생각하고.

요약하면, 김00씨는 암진단을 통하여,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빠른 시일 내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그 조화로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인해 자신 뿐 아니라 이웃이나 환경과도 잘 화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00씨의 영성을 관찰한 결과 김00씨의 영성의 활성화 요인은 암진단이었으며 절대자, 타인·이웃·외부환경, 의미추구와 관련된 모든 차원의 영성이 모두 관찰되었다. 또

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힘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고통스러운 현재 자신의 상태 속에서도 긍정적이며 감사해 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고통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절대자임을 믿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김00씨의 사례에서는 이론적 단계에서 제시된 영성의 속성인 ‘관계성’, ‘내적인 힘’, ‘초월성’, ‘삶의 목적과 의미’, ‘독특하고 역동적인 과정’ 모두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결과와 경험적 준거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김00씨의 현장작업 단계에서 발견된 영성의 지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삶,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사는 올바른 삶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지표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것, 기도 생활, 절제된 생활 등이었다.

이상의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2명의 대상자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영성의 활성화 요인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암진단을 통하여 영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영성의 속성은 이론적 단계에서 도출되었던 영성의 차원들이 관찰되었는데 즉, 절대자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성 차원을 통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 부여 차원으로 전해지는 사례2 김00씨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강00씨의 사례1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지만 그것이 타인과의 불목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또한 이웃사랑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즉, 강00씨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한 타인·이웃·외부환경, 의미추구의 차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강00씨는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무조건적인 호스피스 센터의 돌봄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차원까지도 완전히 회복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독특한 영성의 속성은 두 환자 모두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암의 진단과 투병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뜻에 부응하길 소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암환자의 영성은 이론적 단계에서 제시된 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존재론에 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인·이웃·외부환경, 의미추구의 차원의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이론적 단계에서 제시된 속성, 결과,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차원에 있어서의 개념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각 개인의 영성 수준이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례 3 : 김00씨

61세의 여자 환자로 1997년 12월 오른쪽 유방암으로 진단 받았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다. 2001년 1월 다시 간과 폐에 전이되어 치료받았으며 며칠 전부터는 기침이 심해지고 부종이 있어 pleural effusion 진단 하에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3일 전 입원하였다. 김00씨는 결혼한 딸과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으며 현재는 남편, 아들과 함께 병원 근처에서 살고 있다.

김00씨는 적극적인 성격과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연구자가 병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표정이 밝았으며, 혼자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입원 후에 이노제 복용으로 기침도 없어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연구자가 질문하기 전부터 활발하게 말을 이어왔다. 김00씨는 결혼 전에 국악인으로 활동해서 해외 공연을 자주 다녔으나 결혼과 함께 집안 살림만 하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젊어서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25살 때부터 불교를 종교로 하여 절에는 가끔 갔었지만 실제적으로 불심이 깊어진 것은 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라고 하며, 그 후부터는 불교 방송과 불교서적을 통해 계속적으로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김00씨는 불교에 대한 공부를 통해 불교의 교리를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불교는 정말 좋은 종교인 것 같다고 말한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1) 부처님과의 관계성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과의 대화로서 해소한다는 김00씨는 건강이나 신앙적 성숙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종교가 없으면

무척이나 서글프고 외로울 것 같다고 한다.

“건강하게 해 달라고 하고 신앙 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약약에 종교가 없다면 굉장히 서글퍼질 것 같아요. 의지가 안티니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어도 누구한테 잘못하고 그러는 거 부처님한테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발되고 고생스러웠던 한동안은 내 처면을 거는 거야, 부처님!, 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같으면 더 살게 해 주시고 필요 없는 존재라면 고생스럽게 하지 말고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러죠. ”

그러나, 불교에서는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야 해서 기도할 때는 암으로 수술한 환자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건강해서 고통스럽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

“부처님말씀에 아프지 않길 바래지 말겠어. 오묘해진다구.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내말을 위해 하지 않고 환자들 전부를 위해 기도해줘요.”

(2)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아 초월, 역동성

김00씨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자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자신의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의식의 변화, 절제, 인내, 이웃을 섬기는 보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우리 불교에선 부처님이 큰 백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거든요.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지. ... 글썸. 그동안에 처을 많이 졌다면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갈 것이고 극락이 있다면 극락에 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꼭 지옥이 있다 극락이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해요. 내가 오늘 기쁘고 즐거운 이 있으면 극락이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날이면 그 날이 지옥이 아닌가 싶어요. ... 부처님은 사람이

에요. 자기가 바뀌서 자기가 지혜롭게 살면서 자기가 부처됐려고 노력하는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큰 기적 같은 일은 없죠. 내가 이렇게 지내보면은 자기가 좋게 좋게 하다보면은 자기가 좋은 눈으로 보니까 뭐.

(3) 절대자 능력에 의한 초월성의 결여

“부처님은 우주에 나신거지. 부처님은 사잖이에요. 자기가 바뀌서 자기가 지혜롭게 살면서 자기가 부처됐려고 노력하는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적 같은 것은 없어요.”

김00씨는 어떤 기적을 바라거나 현실세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대자로서의 부처님의 모습은 기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노력에 의해 절대적 존재에 이른 분이므로 김00씨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2)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차원

(1) 보시

부처님과의 관계를 통해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그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며, 이러한 이웃에 베푸는 보시의 개념이 불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불교원리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럴 때는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용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미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참고 인내해야죠.”

김00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으며, 항상 주위의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암환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

“기도할 때는 환자들 전부를 위해 기도해줘요. 이 세상 앓 수술한 사람들 재발하지 않게 해 달라구 그러고 건강하게 해 달라구.”

또한 김00씨는 그 영성의 정도가 이웃과 타인에 대한 차원의 관계성의 모습으로 주로 외부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2) 고행을 통한 변화

부처는 신의 존재가 아니고 다만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세계로의 깨달음에 도달한 한 인간이라고 하며, 그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점차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불교의 진리를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

“그 전에는 왜 나랴 이렇게 속상해 왜 나랴 이게 없어? 왜 나랴 ... 그 목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그런데 목심이 없어지더라고. 베풀고, 돕고 살고. 힘없으면 약이래도.”

3) 의미 추구와 관련된 차원

(1)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 위한 노력

자신의 질병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생명이 있으므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김00씨는 불교 공부를 통해 부처님이 사람이었고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거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부처를 통해 찾으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러한 김00씨의 모습에서 인간은 자신보다 우월하고 초월적인 절대적 상위 존재를 갈망하는 영적 존재임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고통스러운 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같으면 더 살게 해 주시고 필요한 없는 존재 같으면 고생스럽게 하지않고 빨리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죠”

(2) 자아 초월

김00씨의 대표적인 영성의 속성을 ‘내면적인 초월성’에 대한 현장 관찰에서 불

수 있었다.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자신이 스스로 고행하고 인내하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인내를 통해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고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

“다른 변화보다도 마음이 편해요. 내가 갇다면 내가 필요하니까 데려가겠지 하니까 비판하지 않아요 …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고 노력을 하니까 밝아지더라고요. … 한 동안은 재밌었고 나서 고생스러울 때는 내 자신에게 치면을 거는 거야. ‘부처님 저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무엇도 있고 …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또한, 김00씨에서 보여진 영성의 지표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결국 외부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웃에게 더 넓은 보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오늘 기쁘고 즐거우면 극락이고 너무 너무 속상하고 괴로우면 그 날이 지옥이 아닌가 싫어요.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워야지 ”

김00씨는 불심이 깊은 사람은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기도를 하며 그 결과로서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 이웃에게도 다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선을 베풀게 된다고 한다.

“절에 처음에 다닐 때는 복 달라고 당겼어요. 그러다 불교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냥 기도하 하게 되는 거야. 불심이 깊어지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을 보면 타서도 각쟁이 같아 보이지 않게 되고.”

불교를 종교로 가진 암환자인 김00씨의 영성을 요약해 보면, 암진단으로 인해 영성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영성의 차원 중 타인, 이웃, 외부환경과 관련된 차원

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나, 절대자와 관련된 차원과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에 있어서의 영성 개념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김00씨는 원칙적으로 불교의 원리에서 말하는 부처님과 인간의 내면에서 원하는 절대자간에 확실한 개념을 갖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또한, '초월성'에 관한 속성에서는 자신의 내부,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속성은 보이지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절대자의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는 차원의 속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도 아직 뚜렷한 속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김00씨의 사례를 통하여 볼 수 있었던 영성의 속성은 절대자를 향한 '초월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의 일부를 제외한 '관계성', '내적 에너지원', '독특하고 역동적인 과정'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김00씨의 영성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해탈을 통해 극락에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인식된다.

4. 사례 4 : 김 00씨

김00씨는 42세의 남자환자로서 2001년 6월 위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 받았다. 현재는 간으로 전이된 상태이며, 항암요법을 위해 입원하였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직에 종사했던 김00씨는 자신이 암에 걸린 원인을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고 있으며 현재는 질병으로 인해 사직한 상태이다. 부인과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 아직은 경제적으로 위협받지는 않는 상태이며, 건강이 좀 나아지면 개인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면담 당시 오심이나 구토, 식욕부진의 증상 없이 전신적인 상태 좋아 보이며 표정도 밝은 편이다.

김00씨는 결혼 전에 1년 정도 성당에 가끔 나갔으나, 결혼 후에는 부인과 함께 일년에 몇 번씩 절에 나갔으며 집에서 가까운 절에 수술직후엔 한달에 2~3회, 최근엔 일주일에 1~2회 정도 방문하고 있다. 김00씨는 자신이 영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속인인 여동생을 통해서였다고 한다. 6남매 중 유일하게 생존한 여동생이 무속인(무당)이 되면서 지난 3-4년 동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암을 진단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죽음과 영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동생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었으며 면담 당시에도 무속인인 여동생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1) 부처님과의 관계성 및 역동성

암진단을 받은 후 종교와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이 없을 때도 있지만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한다. 김00씨는 암진단으로 인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그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마음의 평안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안하던 짓도 한다고. 앞선고 받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죽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리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 봤어요. 죽음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희존? ... 멋있게 살다 죽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안된다 하면은 서운하고 억울할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게 유희존 것 같고 ... 함장해서 불경을 읽면서 기도하죠 부처님께.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죠.”

김00씨는 암진단과 수술을 계기로 부처님과의 관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절을 찾는 종교적 행위 실천이 이전에 비해 더 잦아졌으며 그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절에 거의 안갔죠 일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암진단 받고 수술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갔고, 수술하고 나서는 한 달에 두세 번 가고. 요즘에는 심심하면 가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가기도 해요. 기분이 이상하다 싶으면 가고. 갔다오면은 마음이 편하고.”

(2) 자아 초월성

자신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은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자신의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내 믿음이랑 평안함. 항상 마음이 편해요. 성당은 성당대로 가면은 마음적으로 웅장한 것을 느끼고 절에 가면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까. 집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딱 절에 들어가면 마음자체가 고요하니 잠을 자는게 아니고 몽상에 잠기는 착각도 들어요.”

(3) 절대자의 능력에 의한 초월성

김00씨는 손목에 낀 염주를 내 보이며 염주를 낀으로써 악몽도 꾸지 않고 편안해졌다고 말하며 무속인인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말한다.

“절에 가서 염주 두개를 샀어요. 집사같하고 저하고 하나씩 끼고 날 다음부터는 악몽을 안 꾸요. 그래서 잘 때는 꼭 끼고 자요. 끼고 자고 아침에 또 사진 위에다가 걸어놓고 애들 고모가 무속인인데, 저는 처음에는 모든 일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 동생이 그냥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 우리 같은 사람은 영적인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해를 못했어요.”

김00씨에 대한 현장관찰에서 독특한 것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저승사자를 본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크게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등장하는 저승사자는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협에서도 믿음으로 인해 견뎌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영’이 있다고 봐요. 저한테는 저승사자라는게 있어요. 많이 봤어요 4번이나. 84년도에 차사고가 나서 18미터나 끌려갔어요 전복된 차 안에서. 무릎만 다치고 기적했는데 그때 한번 보고 절 부르더라고요. 따라갔어요. 형상은 있는데 얼굴이 없더라고요. 손발은 있는데 허영고. 따라

갔는데 거기서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딱 깬어요. ... 그 다음에는 수술 끝나고 마취 깨어날 때까지 꿈에서 그걸 본 거지. 섣뚱하더라고. 옷이 싹 젖을 정도였으니까요. 동생도 그랬구요. 멀음 때문에 견디지 않았나 싶고. 그런 것도 없었으면 혹시나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김00씨의 현장관찰에서 나타난 절대자와 관련된 차원에 있어서는, 무속신앙에서와 유사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저승사자의 개념과 자신의 내면세계 내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려는 내재적인 측면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2)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차원

(1) 보시와 화합

김00씨는 자신 이전에 남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의 원리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고 한다. 상대방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러한 김00씨의 자아와 타인에 대한 관념자체는 상호작용 안에서 자아를 보는 유교적인 인간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를 이전에 낚을 더 생각하고 낚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나를 찾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위하는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베풀면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베풀고 살면은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라는 걸 자주 공감해요. 뭐든지 일단 베풀어라. 나부터 보다는 일단 낚부터 생각하자.”

김00씨의 영성에 대한 관계성 측면은 평안과 화합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웃과의 차원이 주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용서해야만 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한량이 없으면 멀음을 가질 수도 없고 개개인의 마음과 마음이 한량을 해야지. 종교의 힘도 있는 거고 개개인이 마음이 한량하지 않으면 흔들리니까. 종교

든 어느 집단이든 한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불교 신앙심 때문에도 그렇고 또 천주교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죠.”

결국, 김00씨에서 발견되는 타인, 이웃, 외부환경과 관련된 차원의 영성은 대인관계 속에서의 화합을 통해 찾는 것으로서 타인이나 외부환경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베푸는 것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3) 의미 추구와 관련된 차원

(1) 삶의 의미와 목적

자신의 희망은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 사는 것이고, 지금 죽는다면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기에 죽을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질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족이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죽은 후에 원망을 듣기 싫어서 라고 한다.

“애들이 좀 더 컸으면 부담감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아직 어리니까 지난번에 항암제 맞기 전에 의사선생님과 면담하다가, ‘이걸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라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시길래, 지금 죽기엔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걸 맞다가 죽으면은 죄를 너무 크게 짓는 것 같아서 죽기 싫고 억울하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좀 해주고 도움을 주고 좀 그러고 죽어야 하는데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가족한테나 남한테도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면폐 끼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은 목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죽을 수가 없어요.”

또한, 김00씨는, 지금까지는 너무나 각박하고 여유 없이 살아왔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편안하고 느긋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을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게 보기를 희망하며 타인에게도 도움을 주며 나아가길 원한다.

“지금까지는 너무 각박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여유를 가지면서 도움 것 있으면 돕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욕심도 없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뉘이니까. 툭툭 떨어버리고 편안하게 도움 건 도우면서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김00씨는 암을 진단 받고 난 후 점점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며, 행동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고 더 잘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현재의 생활로 인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내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이번 퇴원 후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항가지 항가지가 조심스러워지고 다짐을 하게 되죠. 나는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나쁜건 안하고 어떤 일이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할려고 그러고. 예전에는 아무거나 생각나는대로 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해요. ...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못하는 것 일당 퇴원이라도 하면 내 뉘에 대해서 내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좀 더 해보자’ 하는 생각. ... 서른 베풀고 그해야죠.”

김00씨의 영성을 관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00씨에서 독특하게 관찰된 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느끼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심한 상태이며, 자신이 일찍 죽게 되면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괴로워한다. 김00씨가 생각하는 영성에 대한 개념은 저승사자라는 것과는 상반되는 선한 믿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신에게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베푸는 생각이나 행동을 통하여 평안을 찾는 것이다. 또한, 김00씨는 여동생으로 인해 무속적인 영의 개념 수용과 유교적인 인간관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김00씨는 ‘영’의 존재를 인정하며, 무속적인 의미의 신의 개념을 받아들임으

로써 절대자의 능력에 의한 초월성의 속성을 보인다. 또한 불교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웃이나 주변과 관련하여 화합하고 용서하려는 마음과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려는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차원의 속성이 잘 관찰되었다. 김00씨는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어린 자식에게 두고 있으며, 자식이나 타인에게 죄인으로 남기 싫어서 죽을 수가 없다고 한다. 김00씨는 영성의 지표로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한번 더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서는 절에 더 자주 가게 되는 종교적 실천을 들었다.

5. 사례 5 : 정 00씨

75세의 남자 환자로 2000년 2월 cholangiocellular cancer로 진단 받았고 현재는 간 전체로 전이 있어 입원 치료중이다. 빈혈이 심해 수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첫 면담을 시작하였으나 어려움 없이 차분하게 면담에 응하였다. 정00씨와 첫 면담당시에는 보호자가 없었는데, 두 달 전에 둘째 며느리가 폐암으로 갑자기 사망해서 환자의 부인은 손자들을 돌보느라 집에 있다고 한다. 환자는 표정의 변화나 요동 없이 조용하고 천천히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했으나, 지금이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3남 1녀의 자녀를 둔 정00씨는 지난 40년 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상태로서 자녀 모두가 분가해서 살고 있고 얼마 전 엄마를 잃은 두 손자와 부인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좀더 가정적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 말하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자식 교육하느라 지키지 못해서 조상님들께 미안하다고 한다.

할머니, 어머니, 자신의 3대에 걸쳐 불교를 믿어 왔고, 말로는 자기 대까지는 불교를 믿을 것이라 하지만 큰아들 내외가 성당에 나가고 있으며 둘째 며느리의 유언으로 둘째 아들도 성당에 나가기 때문에 천주교와 불교의 개념을 혼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면담 중에 관찰되었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1) 부처님과 관계성, 역동성

정00씨는 어려서부터 집 근처의 절에 다녔지만, 정년퇴직 후 더 자주 들르게 되었으며 암을 진단 받은 후에 더욱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되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고 말한다.

“암을 진단받고부터 복선이 더 깊어졌죠. 속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곤 하죠.”

부처님과 관계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나 내면 속의 자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침묵 속으로 모든 것을 내재하는 듯한 표정이다. 또한, 자신의 종교인 불교와 관련된 모든 언급에서 기독교, 천주교, 유교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자신의 종교관과 자녀들의 종교를 혼합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속으로 진단받고 나서 속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죠. ... 특별히 변할거야 뭐 있나. 똑 같지 뭐 ... 아무래도 한번 더 신경써서 얘기하고 뭐 그러는게 ...”

(2) 자아 초월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지만 인생 자체가 고행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헤쳐 나가야 한다고 믿으며 이러한 강인함의 원천은 자신의 신앙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의 힘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사는 것이 고행이지 뭐. 사는 것이 다 고행아니까. 그야말로. 고통이지. 길이지. 사는 것이. 그것을 헤쳐나가려면 여러 가지 거시기 떨고 인내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은 신앙에서 나오죠.”

(3) 절대자 능력에 의한 초월성 결여

정00씨 사례에서는 자신 안에서의 극복이나 안정은 가능하지만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한 초월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 정00씨는 질병은 의술에 의해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큰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며 특히 자신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참는다는 것이 더욱 힘겹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말한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과학에 의해서 병이 낫는거지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겁니까. 모두 기도만 해서 마음의 안정은 됬테지. 기도해주고 성법해주고 할 것 같으면. 신적은 안정은 됬테지만. ...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넘는다는게. 그게 그야말로. 참는다는게 어려운 애기지 뭐. 그러니까 참는게 . 인내라고나 할까. 그 복우한 여러 가지 처지에 닿아 있을 때에는 남들이 나한테 악행한다고 했을 때 참는다는게 참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게 참기 어려운 ...”

2) 타인, 이웃, 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1) 이웃에게 베푸는 삶

불교의 중점을 이루는 핵심내용은 자비에 있다면서 남을 잘 돌보고 이웃에게 잘하라는 자비의 개념을 설명하며, 용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독교에서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불심이 깊어질수록 이웃에게 더 잘 베풀 수 있다고 한다.

“용서를 해야지. 기독교에서 바른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밀라는 얘거나 마찰가지런 불교에서도 똑같은 거시가지.”

3)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

(1) 삶의 의미와 목적 결여

삶에 대한 큰 애착이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질병이 회복되기를 바

라는 마음은 있다며 허탈한 미소를 짓는다.

“특별한 희망이 뭐 있나 …. 낫으면 좋겠지.”

정00씨는 암 진단 이후에도 질병으로 인해 특별히 일상생활이 변화되지는 않은 상태이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때는 신체적인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75세의 나이 때문인지 삶에 대한 집착이나 희망을 내비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

(2)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서의 종교

정00씨에 나타난 독특한 특성은 큰아들 내외가 성당에 나가는 것과 둘째 며느리의 유언으로 인해 그동안 불교에 열심이었던 둘째아들이 성당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 그동안 대대로 물려받았던 종교를 자식 대에 전수하지 못할 종교적인 혼돈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00씨는 불교, 유교, 천주교의 개념이 혼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며 자신이 이런 것들을 잘 절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대수호 3대째.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고 나까지 3대째. 어려서부터 다녔지. … 진리는 어느 종교나 하나라고 생각해. 근데도 할머니, 어머니가 믿어왔던 거니까 급작스러 개종할 필요는 없는 거지. 내 대까지는 내가 지켜서 믿는다는 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지. … 불교의 특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불교라는 게 국교라 마찰가지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이고. 문화라는 게 전부다 불교문화고.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게 다른 문화재 있습니까? 전부다 불교문화재지. 그거를 미루어서 불교라는 게 전통적인 우리나라 국편의 신앙으로서 첫째라는 거지. …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지 뭐. 그건 같은 거고. 기독교나 똑같은 것이고. 영혼이야 살아있는 거지 뭐. 죽은 사람 영혼과 산 사람 영혼이 구별될 리가 있나요?”

정00씨의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결과는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차원으로 나타났다. 정00씨는, 영성의 결과는 남을 위하여 베푸는 보시의 행동으로 변화되어 나타나야 한다고 믿으나 자신은 돈도 넉넉하지 않고 해서 시주도 제대로 못하고 극락에 갈 자신이 없다고 한다. 또한, 그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성의 실체는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며 특히 타인을 위한 행동과 시주를 많이 하는 것 등의 종교적 행위의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남을 위해서 보시하고. ... 행동으로 변해야지. 변해야하고. 나쁜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복근을 먹고 하면서 남의 해 끼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지. ...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시주도 많이 해야.”

정00씨에서 관찰된 영성에 대해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00씨는 퇴직과 암진단 후에 종교적 관심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으며, 조상을 섬기는 유교적 사상과 자신을 인내하며 고행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불교적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기반 위에 자식들과의 화합과 천주교에서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용납한다는 사실 때문에 천주교를 받아들여려는 생각으로 복잡한 상태이다. 정00씨에서 관찰된 독특성은 모든 종교는 공통된 진리를 가진다고 믿는 것이었다.

정00씨에서 나타난 영성의 속성은 주로 타인, 이웃, 외부환경과 관련된 차원에서 관찰되었는데, 즉 이렇게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우선을 두는 삶을 통해 극락에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 자신의 해탈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75세라는 나이와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 희망에 관한 속성은 관찰하기 어려웠다. 결국 정00씨의 영성은 고행을 통해 타인을 향한 보시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00씨에서의 영성의 지표는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동에 있으며 실제적인 준거로는 희생과 좋은 일을 위해 시주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3명의 종교가 불교인 대상자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영성

의 특성은, 인간인 부처를 인정하면서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지 않지만 절대자와의 공존감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섬김과 베푸는 행위의 중요성이었다. 자신의 노력과 인내로서만 가능하고 타인에 대한 베품을 통해서만 영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4 김00씨의 사례에서는 무속적인 특성이 혼합되어 초월성의 속성까지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사례5 정00씨에서는 종교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여기는 유교적입장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6. 사례 6, 황00씨

49세 남자환자인 황00씨는 2001년 9월 폐암으로 진단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뼈로 전이된 상태이다. 이번 입원은 항암요법제를 투여 받기 위한 것이며, 현재 기침·가래·요통이 있는 상태이다. 연구자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환자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는 무표정하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일상적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질병에 대한 주제로 말을 시작하자 별다른 거부감 없이 면담에 잘 응해 주었다.

황00씨는 부모님은 계셨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 왔으며 30년 동안 페인트공으로서 일하였다. 그는 자신이 폐암이 걸린 원인은 하루에 1-2갑 정도의 담배를 30년 동안 피워 온 것과 페인트 일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황씨는 18살, 14살 된 두 아들,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암을 진단 받은 후에는 직업이 없는 상태이다.

황00씨는 15세부터 결혼하기 전인 29세 경까지 거의 모든 종교에 짧게는 1회 방문부터 길게는 3년 정도까지 참여한 적이 있으나 20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특정 종교 없이 지내는 상태로 자신이 무교라고 주장한다. 황00씨는 인간이 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절대자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1) 절대자와의 관계성 체험부재, 무관심

황00씨에서 관찰된 독특한 점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도 가끔씩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으면 하고 원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끔 영적인게 있나 하고 생각하는데 큰 힘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큰 힘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 그럴 때는 절대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거 그런 것도 있고. 다시 말하면 자식한테나 상태편한테 내가 이거는 해줘야 하는데 못해줄 때. 근데, 제가 ‘도탁주순’ 해도 도탁주지 못하니까. 나을. 나을 못 도탁주니까. 내가 구했을 때 그게 구해져야 저기 되는 거지 구해지지도 않는걸 뭐.”

황00씨는 인간에게 영적인 면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는, 자신이 곤경에 처하거나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만 그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느끼고 갈구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황00씨 자신은 스스로만의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자의 힘이 존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러한 절대자의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절대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황00씨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살 것이라고 한다.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나 같은 경우엔 혼자 살아왔고. 부모 도움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거고. 몹이 이렇게 된거는 어쩔 수 없는거고 치룬나 열심히 받느거고 내가 하는 일 꾸준히 해 나가는거고 ...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거. 내가 할수 있는거에서 하는거지 아무리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한다고 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있고 할 수 없는게 있는거지. 마음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길은 저쪽에 있다. 할 수 없는거는 그걸 안되는거지. 할 수 없는건 할 수 없는거고. 할 수 없는 건 딱 끊고 ...”

황00씨는, 절대적 영적 존재가 자신이 볼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신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과 같이 감각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하며 신경도 안 쓴다고 말하며,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겠냐고 되묻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거를. 장을 수만 있으면 장고, 내가 안됐을 때 부르면 와서 나를 데려가 가지고 그러면. 내가 보면 믿을 수 있지만. 눈으로 안보고는 안 될거든. 눈으로 보이고. 경험을 해야지만 믿을 수 있지. 그러기 때문에 아닌건 아니고. 찢어버리고.”

(2) 미래지향성의 결여

자신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누구나 한번은 가야하는 것이므로 암진단에 대해 크게 놀라지는 않는다고 하며, 죽음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차피 사람이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이래가나 저래가나. 조금 빨리가는 거고. 그거 차이인데. 거기서 조금 더 살려고 아등바등해봐야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거고. 그걸 편하게 받아들여야지 ... 암 진단 받았을 때 처음에도 무덤덤하고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 죽음 이후의 삶 같은거 그런건 생각 안해요. 뭐 천당이 니 지옥이니 하는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요. 천당에 가고 좋은데 가고 하는거 안 믿어요.”

2) 타인, 이웃, 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1) 인간관계의 단절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입어 온 황00씨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믿을

수 없으며 주는 만큼 항상 받아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즉시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한다. 자신이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지만 부인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내 보일 친구도 없다고 한다.

“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건축계통의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죠. 일을 해놓고 일 다 끝나고 돈 없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알아먹고 돈 없다고 큰소리치면 돈이 나오나. 그런 거 보면 안 좋은 사람도 많고... 나한테 해주는 막대한 상대방한테도 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 정말 마음을 턱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라고 봐야죠.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줄만한 친구도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만한 사람이 없어요. 안사람도 80% 정도?”

결국, 황00씨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받아 온 상처로 인해 타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이상의 무조건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믿으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성보다 단절과 불신임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3)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

(1) 삶의 의미와 목적

황00씨가 오직 희망을 두는 것은 자식뿐이며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는 없으며 오직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현재 자신의 상태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지금 상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몹이 안 좋은 상태가 나한테는 제일 저거한테고. 다른거? 생각 같은거는 생활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이거는 끊지도 못하는거고. 아픈게 아니라고 내버릴수도 없는거고”

오직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인 자녀에
뿐이며 그 아이들이 대학이라도 졸업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
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언제라도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담담한 표정을 짓는다.

“지금은 애들. 애들보고 살죠. 나 혼자만 생각할 때 보면 모두 다 때려치고
어디 몇달 떠돌아다니다가 두어달 후에 죽으면 고맙인데. 그건 간단한 거예요.
신경쓸거 하나도 없는거예요.”

황00씨의 참여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어서 절대자를 의
지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명제는 황00씨의 현장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신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왔다고 주장
하는 황00씨는, 과거의 삶을 통해 볼 때 절대자는 없다고 단정하고 거부할 뿐 아
니라 타인이나 주변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황00씨가 영적으로 고립되기까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어린 시절에 부모
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했던 가정적 원인, 과거의 종교생
활을 통하여 경험한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과 불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00씨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
며 그로 인해 주고받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황00씨에서의 영성의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힘(power)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영’이 외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는 ‘영성’ 개념에 대한 속성을 황00
씨는 절대적 존재의 능력을 통한 초월성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과거에 그러한 초월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 위기상황인 현재의 상황에서도 절대자와 화해 또는
관계회복을 위한 전환점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이며, 영성 지표의 어떤 형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에 반하여 절대적 존재에 대한 포기과 무관심, 인간관계의 단
절,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만을 믿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7. 사례 7, 우00씨

48세의 남자환자인 우00씨는 2001년 8월 위암 4기로 진단 받고 수술(B-II GJ Stomy)받았다. 이번 입원은 13번째 항암요법을 위한 것이다. 우00씨는 암을 진단 받고, 수술하고, 항암요법을 하면서도 의사의 오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02년 4월 항암요법시 심한 오심, 구토로 인해 심하게 고생함으로 인해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00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고 말한다. 암을 진단 받기 전까지 지난 20년 간 하루 한 갑 반 정도의 흡연과 주 5회 정도(소주 3병/회)의 술을 마셨고 또한, 최근 3년 동안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큰형 마음대로 팔려해서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우00씨는 이런 원인들이 자신이 암에 걸린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20세 이상 된 두 아들, 부인과 함께 지내고 있으며 인삼 재배와 판매 일을 대규모로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다. 거주 지역에서 정치적인 일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며, 자신과 절친하게 지내는 정치인들과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우00씨는 전체적으로 혈색이 없고 심하게 마른 편이었으나 목소리나 표정은 좋은 편이었으며, 성격이 화통하고 외향적이어서 질문하기 전에 자신의 명함을 주며 스스럼없이 면담자를 대했다.

초등학교 때, 교회에 딱 한번 가본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어느 종교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우00씨는 신은 없으며, 인간은 신체·정신만으로 구성된 이원론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위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독교인이 많아서 조만간 교회에 나가야 할 것 같으며 그것은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1) 절대자의 존재 부정

우00씨는 암의 진단, 수술, 몇 차례의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암환자임

을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1달 전 항암제를 맞고 심하게 고생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암환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씩씩하게 웃는다.

병원에 다시 입원했을 당시에는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다시 별다른 문제없으니까 다시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런 결심은 자신이 암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00씨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웃는다.

“처음에 오고 나서는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팠어요 사실,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휴... 과연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난 그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믿어라 하는데 난 아직까지 인정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녀요. 언젠가는 나도 모르지. 더 몹이 약해졌을 때는 믿음을 가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또한, 자신이 경험하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의 변화를 통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자는 없으며 인간이 만들어 낸 신은 단지 인간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교회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없는건 아니고. ... 그런 계기를 갖게 하는데 양이라는 진단이 영향을 준거죠. 그리고 내가 양으로 진단 받기 전에도 내 친한 친구가 그 양수술을 받은 것이. 물론 그 친구 지금은 낫췌해요. 양이 완치됐지. 수술한지 5년 됐으니까. 개는 완치됐다고 보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겠나. 믿음이러는게 큰 역할을 해 준다는게 생각이 돼. 우선 마음가집이 중요한 거니까.”

(2) 절대자의 능력에 의한 초월성·미래지향성 결여

현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주장한다. 영혼 같은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는다.

“그렇지않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믿으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거지 그것이 왜 그러냐 너 하나님 얼굴 봤냐 하나님 얼굴 그려 봤냐 그러면 하나님 얼굴 그리는 사람 없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똑같이 그려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려라 하면 못 그려요. 다 다들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면 다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깊게는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까지않 생각하고 있었어요. ... 무슨 곳하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의 믿음 그걸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숭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혼이 있고 뭐 ... 영혼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죽어 가는데 뭐 그 불 속에 가서 뜨겁게 타는게 뭐 ... 천국, 지옥? 현재까지 살았던 영혼들만도 걸려서 다니지도 못하겠어. 죽은 영혼이 좀 많겠어. 죽은 사람으로 걸려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니깐 영혼이라고 하는 거지않. 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나.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건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왜 이겨내냐면, 정신이 육체를 이겨내는 거예요.”

우00씨는 인간은 정신과 육체만을 지닌 존재로서 영혼의 개념은 인정할 수 없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를 이겨냄으로써 현실에서 보다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의 ‘영’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를 보였다.

“난 생각이 그대요. 사람이 죽어서 수명이 끊어지면은 모든 거는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죽어서 시체를 화장시키는 사람도 있고 매장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알겠어요. 생각하는 그 자체 세포 뇌세포가 다 없어지는데 사실 영혼이 뭐가 있고 뭐가 어디 있겠냐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서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예.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마음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마음이 강해지고 장년이 없어지고 강해지고 그러는 것은 있는 것 같 더나구요.”

(3) 자아 초월

우00씨는 현재 자신의 상태 때문에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으면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자를 인정한다거나 영혼이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는 아니며 다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 거는 마음적으로 기대는 거죠. 사실.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의 지주가 되는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지주가 되어가지고 기대는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거를 뭐 천당가고 지옥가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지 않아요. 모든게 음식 먹고 그런 모든게 씹어서 흠이 되고 뭉이 되버리는데 내가 뭐가 있냐 말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난 종교를 믿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우00씨는 절대적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불안한 현재 위기상황에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00씨의 사례에서는 인간의 영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며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성이나 그 관계성에 기반된 초월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2)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1)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결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있으며, 자신이 죽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문중 땅을 자신의 임의로 모두 팔려다가 환자와 소송중인 큰 형의 경우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 한 두어 사람 있어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배신을 했던 사람들. 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용서 안해요. 죽을 때까지도 용서를

안할꺼예요. 내가 상당히 그 사람을 어찌어찌해서 도박했던 사람인데, 사실 15년 전에 집 한 채 값을 날려 정도로 도박했으면 많이 도박준 거지. 나도 없을 때인데. 그런데 거기서 배신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 ... 특히, 내 큰형. 난 용서 안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한테 유언을 할꺼예요. 그 사람은 내 죽은 제사상 앞에 놔두지 마라.”

우00씨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좀 더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또한,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 속상해 하는 모습이다.

“내 자체가 남한테 대한 신조가 그거예요. 내가 조금 멀지는 듯하게 살자. 이것이 내 신조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득을 보겠다고 절대론 난 그렇게 안 살았어요. 지금도 사람을 사귀어서 이득을 보겠다고는 건 없어요. ... 집 살 때까지 15년 간 사극세방에서 살거예요. 창피하지. 남들한테 전세 산다 그러고 살았어도. 그때도 우리가 주인집까지도 김치해서 줬으니까. 우리가 얻어 먹어보지는 못했어도 내가 먼저 줬어요. 난 지금도 사실 그랬어요. 형한테도 그랬고 ... 내 형제들이 내 도움을 안받아 본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내 도움을 조금씩 받았지만 형제들한테 돈을 안받았어도 내 돈은 다 줬어요.”

3)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

(1) 삶의 의미와 목적의 결여

우00씨는 절대자나 그 밖의 자신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의미를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암의 전이와 전신적인 상태가 악화된 지금의 시기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나 자신의 의지로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고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에요. 그래서, 어휴. 마음을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것쯤이야 못이겠냐. 내 스스로

자꾸만 ‘야 내가 겨우 이거가지고 쓰러질 놈 아니잖냐’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툠
닥거리고 그대요.”

우00씨는 자신이 앞으로 종교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단
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게 할 뿐이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주장한
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라는게. ”

우00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도 좀 더 살고 싶다고도 말한
다. 결국, 절망하면서도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은 성격
상 해결해야 할 것은 빨리 빨리 해 치우는 스타일이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예
비하는 성격은 못되며 자신의 성격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완강하고 독재적이고 말
하며 웃는다.

“이렇게 됐는데 희망이 어딴어요? ... 조금 더 살고 싶은게 희망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거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죽을건지 살건지든 모르는
데 뭘 거기까지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살지
는 무슨. 성격상, 그렇게 끈끈하게 살지는 못해요. 닥치면은 빨리. 체념은 빠르
면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아니면 빨리 그만둬 버리고. ... 그렇게 끈끈하게 살지
는 않지요. 닥치면은 빨리. 체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거니까. 아니면 빨리 그
만둬 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마음에 안들면 안보고 ... 난 우리 큰
놈도 학교 다닐 때, 내 말을 거역해서 난 그 자리에서 쫓아냈었어. 고등학교 1학
년 때. ‘넌 나가서 살아라’ 해서, 일 년 반을 나가서 살았어요. 난 강해요. 우린
그래서 험진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내 성격 그게 단점이에요. 너무 다혈질
이에요.”

(2) 자신을 의지함

자신의 인생의 조절은 자신이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자신을 믿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암진단 받은 후에 자신의 조절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내 자신을 떨쭌. 떨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마음의 떨음을 가진으로써 마음이 강해지고 장년이 없어지고 강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언젠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언젠는 안되고.”

그러나, 우00씨의 사례 관찰에서 볼 수 있었던 독특한 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신에 대해 절대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유교적인 실천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조상 선산을 찾겠다는 것은 내가 묻히기 위해서 산을 찾는게 아니에요.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왜 우리 대에서 아직 우리 대까지는 옛날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젊은애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는 우리 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교사상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철저했어요.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은 안해요. 조상은 무슨 조상이야. 산사람이 먹고 싶어서 제사지내는 거지. 무슨 조상들이 뭐 먹고 갹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성이고. 난 그렇게 봐요. 종교를 진짜 착실히 믿고 하는 사람들과 조상들에게 잘 받들고 하는 건 비슷하다고. 난 그렇게 봐요. 그건 하나의 떨음이니깐. 근데 아니 무슨 조상이 어딴어서 제사할 때 먹고 가진 뭐 먹고 갹니까. 자고로 산 사람들 하도 옛날에 먹으게 없고 제사지내서 먹고 그러려고 했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00씨의 현장관찰결과를 요약하면, 우00씨는 암으로 진단 받고도 오진일 것이라고 믿고 수술을 한 이후에도 실감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암의 악화에 따른 전신 상태의 약화와 통증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인지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우00씨는 인간을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영’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나 우00씨 사례에서 관찰된 그가 보는 영성의 속성을 유추해본다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뚜렷한 우00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면담과정에서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유교적인 실천사상도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00씨가 인간이 영적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도움 없이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만 노력의 결과로서 현재의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왔다는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과 대찬 성격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8. 사례 8, 육 00씨

42세의 여자환자로 2002년 4월 초 유방암 2기로 진단 받고 수술 후 2차 항암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1차 면담 당시 아직 항암제 치료 시작 전이어서 표정은 밝은 편이었으나 항암요법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대학에 다니는 21살 된 딸, 18살의 고등학생 아들, 개인 택시운전기사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신의 질병 원인을 시집살이와 시댁식구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으며, 분가한 이후에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며 오직 자식들과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바쁘게 살아왔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간 적이 있으나 남들을 따라 다녔으며, 그렇게 다니던 것도 교회에서의 의견충돌로 인해 4-5년 전부터는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몇 년 전에는 절에도 다녔다고 한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1)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역동성

육00씨는 이전에는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교회나 절에 갔었지만, 현재는 그동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다고 믿었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 같아서 스스로가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게 여겨지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기존과는 다른 가치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 가장 두드러

진 변화 중 하나는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어서 불교에도 관심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나가지 않던 교회에 가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한다.

“신앙이 아팠을 때 절에도 가 봤었어요. 교회는 어릴 때부터 그런거 있었잖아요. 많이 등락날락.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은게 아니라 낚들고 다니니까 따라 다니다 보니까 …. 그 동안에 교회에다가 이흠은 몰려났어요. 몰려났었는데 언젠가 권사님하구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서운해 했겠지. 그 후로 ‘내가 다시는 교회에 안 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인세는 나도 모르게 어딘가 모르게 의지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으면 예수 믿고 믿음을 가져야 성경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낚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어도 된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 몫이 내 몫대로 안 되는 상태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나 아닌 낚편하고 자식하고 내 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육00씨는 절대자와의 관계성을 체험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삶이 살아지지 않음을 암진단을 통하여 절감하였고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으며 그 존재에 대해 체험을 통해 확신을 갖고 싶다고 말한다.

“내 삶이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싶죠. 자연스럽게 어디서인가 나흠, ‘내가 네 생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게 있다면 믿고 싶지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 하는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거죠. … 그 확신에 대한 뚜렷한 건 없지만 뭔가 의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 지금은 누가 가자고 끌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서 나도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2) 절대자의 능력에 의한 초월성 결여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넘어선 기적을 믿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상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 어려운 자신의 상황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남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기적 같은 거요? 반반이죠. 믿고 싶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반반이지. 나도 저렇게 닥치면 남들한테 나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 육00씨에서 관찰된 절대자와 관련된 차원의 양상은 혼란스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로 살아왔던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선뜻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절대자가 존재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한 체험이 없고 과거 경험한 인간관계에서의 실망감으로 인해 선뜻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1) 인내를 통한 조화로운 인간관계

육00씨는 자신만 참으면 모두가 편안해진다는 생각으로 가족이나 이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인내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며, 그러나 그것들이 짐이 되어 암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한다.

“주위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지. 난, 낡 앞에서 낡 안 좋아하는 거 표현하는 사람 아니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참고 또 참죠. 거의 다 참았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가 너무 그걸 참아요. 한층 냥 때는 내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나는 한층 나하나 참으면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

육00씨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싫어하거나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지는 것 같다며,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냐고 반문한다. 결국, 자신이 인내하고, 참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용서 못할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 전에는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싫다고 안하니까 나는 싫다고 말할 못 하는 거지. 나 혼자 그러는 거지. 지금은. 뭐 ... 그대요. 내가 나를 편하게 하다보니까. 그대야 편하게 지니까. 내가 나를 많이 다스리지.”

3)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

(1)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

육00씨는 지난 3년 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예민하고, 불안하며, 신경질적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런 상태에서 암을 진단 받음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암을 진단 받은 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좋은 선택일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육00씨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글쎄요. 누군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던데. 난 그걸진 않아요. 자식은 끈이고 나 하나 자리 지킴으로써 가정이 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거지. 오직 자식 때문에 나를 견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애. 예전에는 나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지금은 나 없어도 잘 살겠지. 그런 생각이 고 어떤 때는 그대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명이 그거밖에 안되면 그 정도를 만족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고. 딱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내 명이 거기까지라면 거기까

지만 살면서 살아 있는 동안엔 내가 사는 방식을 바꿔 보던가. 짧고 굵게.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하고 ... 그런 고민이 있어요.”

육00씨에서 관찰된 독특한 점은,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죽음 이후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그러한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암의 진단과 함께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가치관의 혼란시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유방암을 진단 받은 지 2개월도 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00씨는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단계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인생으로의 시작 선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며 새로운 인생을 자유롭게 책임감에서 벗어나 살고 싶다고 말하며 계면쩍게 웃는다.

“지금은 그냥 편해요. 고민하는 것도 없고. 계속 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진단 받고 그런게. 현실이 아니고 꿈속에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없어졌어요. 자식걱정 같은 것도 그렇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거 다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 결혼했다면 신혼 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야. ... 그냥, 내 맘대로 자유. 여행가고 싶을 때 가고. 하다못해 사고 싶을 때 충동구매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못해봤으니까. 여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가까운데 가고 싶을 때 다녀오고. 그런. 누구 걸리적거리는 사람 없이.”

그러나 자유를 원하면서도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 자신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버리고 혼자이길 원할 때 가족들이 과연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있다.

“나 혼자 있고 싶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주위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냥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잘 참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동안에 내가 잘 살았으면 누가 잘
아주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상태를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 안할 때도 있으니까.”

육00씨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영성에 대한 속성은 암환자라는 자신의 상태를 완
전히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
지 않아 진단 후 일정기간이 지난 암환자에 비해 더욱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단 이후의 기간이 동일한 사례2 김00씨의 관찰 결과에 비교해 볼 때 시
기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각 개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육00씨의 영성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암을 진단 받은 지 채 2개월이 안된 육00씨는 암의 진단으로 인해 기존의 모든
삶의 철학과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암진단 후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 선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자신
의 삶을 찾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그러나, 육00씨는 여전히 자신의 진단을 수용하
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구체적인 방향설정도 안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계기로 인
하여 절대자와의 관계를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혼란스런 단계에 있는 육00
씨의 사례에서는 영성의 속성 중 극히 일부분인 수평적인 관계성 차원, 자신을 중
심으로 한 내적인 힘,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영성의 속성만이
관찰되었을 뿐 영성의 지표는 실제로 관찰할 수 없었다.

이상의 무교 대상자들의 사례를 통하여, 무교는 인간을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존
재로 보고 ‘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7과 같은 무신론자, 신은 있지만 자신
이 체험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 사례6, 8의 불가지론자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적인 특성상 유교, 불교, 기독교의 영
향을 크게 받고 있음도 관찰되었다.

C. 현장 조사에서 도출된 영성의 정의

1. 현장작업 단계에서의 사례 분석을 통한 암환자 영성의 차원

각 사례별 영성의 차원에 따른 결과를 종교별, 사례별로 나타내면 <표 2>,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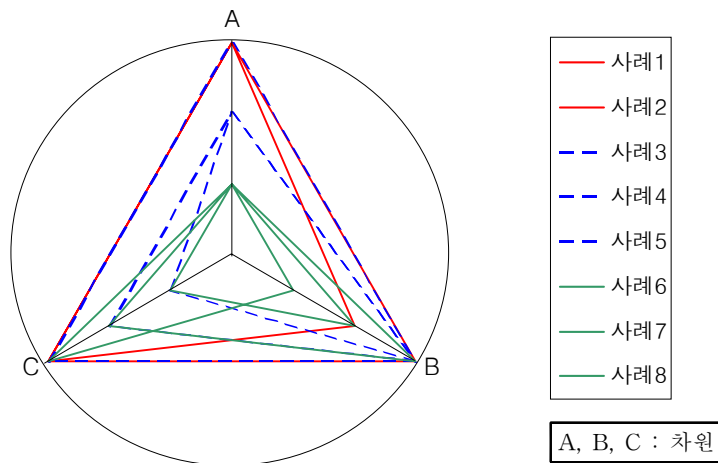
<표 2>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차원

사 례 차 원	기독교		불교			무교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A.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	○	△	○	△	×	×	×
B. 타인, 이웃, 외부환경과 관련된 차원	△	○	○	○	○	×	△	○
C.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	○	○	△	○	×	○	×	△

× :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은 차원

△ : 확실하지 않으나 일부 보임

○ : 사례에서 확인된 차원



<그림 2>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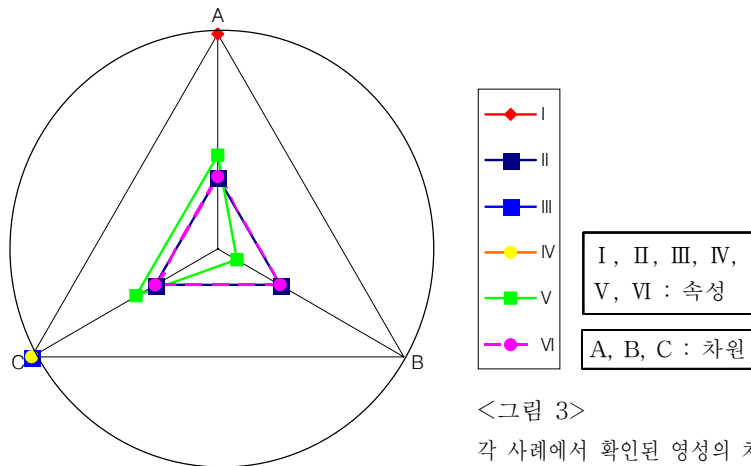
2. 사례별 암환자 영성의 속성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속성을 종교별, 사례별로 제시하면 <표 3>, <그림 3>과 같다.

<표 3>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차원별 속성

속성	내용	종교		기독교					불교			무교		
		사례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I. 절대자와의 관계성	절대자와의 공존감			○	○	○	○	○	×	×	×			
	절대자 의지			○	○	×	△	△	×	×	×			
	기도에 의해 강화			○	○	○	○	○	×	×	×			
II. 초월성	절대자를 통한			○	○	×	○	×	△	×	×			
	타자를 통한			△	○	○	○	○	×	×	○			
	자기 내면을 통한			○	○	○	○	○	×	○	○			
III. 내적 에너지원	내적 에너지원			○	○	○	○	○	○	○	○			
IV.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의미와 목적			○	○	△	○	×	○	×	△			
V. 역동성	노력과 인내를 통한 성취			×	×	○	○	○	○	○	○			
	신앙적 체험			○	○	○	○	×	×	×	×			
	고통 경험			○	○	○	○	○	△	○	○			
VI. 미래 지향성	절대자에 의한 부여			○	○	×	×	×	×	×	×			
	선행			×	×	○	○	○	×	○	○			
	자기 의지			×	×	×	×	×	○	○	○			

× : 사례에서 확인되지 않은 차원
 △ : 확실하지 않으나 일부 보임
 ○ : 사례에서 확인된 차원



<그림 3>

각 사례에서 확인된 영성의 차원별 속성

3. 암환자 영성의 차원, 활성화요인, 속성 및 지표

현장단계를 통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4>과 같다.

<표. 4> 현장단계에서 도출된 영성의 차원, 활성화 요인, 속성 및 지표

영성의 차원	활성화요인	영성의 속성	영성의 지표	
			내적 지표	외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 ·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차원 ·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진단, 암의 전이(악화)를 통한 영적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적이고 독특한 과정 · 절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 · 현실초월 · 내적 에너지원 ·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 · 미래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사랑 · 절제 · 자기 초월 · 평안 · 자아존중 · 희망 · 자기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서 · 기도 · 종교적 실천 · 이웃에 대한 봉사 · 기쁨과 감사

4. 현장작업단계 분석 결과를 통한 암환자 영성의 정의

암환자의 영성은 삶의 위기에 처한 암환자에게 위기 대처 능력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영향요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양상이나 속성으로 나타날 수 없는 독특하고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작업단계에서 관찰된 암환자의 영성은,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닌 것으로서 절대자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통하여 현실 초월, 미래 지향,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미래를 지향하게 하는 내적 에너지원으로서 각 개인에 따라 독특하게 표현되는 있는 영의 외적 발현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V. 논의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혼종모형 단계상 최종분석단계에 해당된다. 문헌을 통한 이론적 단계와 현장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현장작업단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암환자 영성의 차원, 선행요인, 속성, 지표를 제시하고 암환자 영성을 재 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영적 간호 연구와 실무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 영성의 차원과 속성

본 연구는 인간은 몸, 마음, 영의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시도되었다. 이론적 단계에서 일반적인 영성의 정의, 종교별(기독교, 불교, 유교, 무속신앙) 또는 무교의 영성 개념을 알아보고 문헌상에서 제시되는 암환자의 영성에 대한 개념을 파악한 후 암환자의 영성에 대한 작업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작업단계에서는 이미 제시된 암환자의 영성을 토대로 하여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졸 졸업자가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학력자일수록 영적 믿음과 종교적 실천이 높다는 결과(Mickley, Soeken, & Belcher, 1992)에 비추어 볼 때, 저 학력자들이나 대졸이상의 고 학력자들에게서의 영성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40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암을 진단 받은 후의 기간이 1년 이하가 대상자의 절반이상이어서 모든 단계(stage)에 있는 암환자에게 이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론적 단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암환자들은 암진단으로 인해 기존에 효과적이던 대처전략이 부적절하게 되고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며, 새로운 적응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현장작업단계에서 확인되었다. 대상자들은 암의 진단

과 전이, 암으로 인한 전신적 쇠약으로 인해 진실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고통의 의미와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암환자 영성의 속성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에 따라 영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하나님과의 연계성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기독교 영성의 표현, 자신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만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불교, 인간을 물리적 요소로 보는 무신론자, 인간은 신을 체험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들의 영성 표현은 각각 달랐다. 이와 같이, 현장작업단계에서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그 속성에 따른 내용이 다양하고 독특하게 나타났지만 <표 2>, <그림 2>와 같이 세 차원 즉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종교나 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영성에 대한 암환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으며 인간에게 선하고 좋은 힘을 주는 육체 이상의 것’이라는 관점이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차원별 속성을 종교, 연령, 과거 경험, 가족에 대한 부담감 등의 각 암환자 영성의 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연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

총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암환자는 암진단을 통하여 영적 측면인 절대자에 대한 인식과 관계,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문헌(이원희, 1988) 제시와 같이 암환자는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절대자를 찾는 모습, 암과 투병하는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통해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모습이 현장작업단계에서 관찰되었다.

현장작업단계를 통하여 관찰된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은 이론적 단계에서의 수직적 차원을 의미하며, 이 차원에서는 <표 3>, <그림 3>과 같이 절대자와의 관계성, 초월성, 미래지향성, 및 역동성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에서 인간이 절대자를 인식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영적 요구를 절대자와의 조화로

은 관계성과 관련되는 차원으로 제시하였듯이(Elkins, James, Hughes, Andrew, & Cheryl, 1988; Hasse, Britt, Coward, Leidy, & Penn, 1992; Burkhardt, 1989; Howden, 1992; 오복자 & 강경아, 2000),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차원에서의 핵심적인 속성은 절대자와의 관계성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례6과 사례8의 경우엔 절대자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는 문헌에서 제시된 불가지론자(agnostics)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초월성의 속성에 있어서는, 사례3과 사례5에서는 사례1, 사례2, 사례4에 비해 절대자의 능력을 통한 초월성의 속성이 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론적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절대자를 인식하거나 관계성을 강화하게 하는 활성화 요인을 개인의 내적 성찰과 자기 반성으로 보았으며 특히, 암환자의 경우엔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질병으로 여겨지는 암의 진단에 따른 영적인 자각으로 보았다(Ross, 1995; Reed, 1987). 그러나, 현장작업단계에서는 내적 성찰과 자기 반성보다는 암진단 또는 악화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나 새로운 생의 의미를 찾는 영적 자각을 통해 영성이 활성화되었다. 각 개인에 따라 암의 진단과 함께 즉시 나타나는 경우, 암을 진단 받은 당시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암의 전이나 전신적인 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경우, 또한 암의 계속적인 악화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의 '영' 자체를 거부한 채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도 사례7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절대적 존재를 인정하고 찾으려 여러 종교 집단에 속해 보며 노력했지만 그 추구 과정에서 절대자를 체험하지 못한 채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해 절대자에 대한 추구 자체를 포기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 사례를 사례6 황00씨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절대자와 관련된 차원은 문헌고찰단계에서 제시된 절대자와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확고하고 강해진다는 사실과 또한, 기도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는 선행 연구(오복자, 강경아; 2001)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관계는 외부적 상황이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침체되거나 강화되기도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성은 고통 속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암환

자를 영적으로 돌봐주지 못한다면 이 고통은 자아해체, 인간관계의 단절, 삶의 의미 상실 등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

수직적 차원에 대한 현장작업단계에서 가장 독특한 점은 종교에 따라 절대자와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의 주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에서는 오직 모든 것의 주체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 자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보고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통하여 또 다른 차원의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무욕을 위한 기도, 타인을 향한 베품(보시), 고통스런 삶을 인내해 나가는 고행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실무에서 영적 간호를 적용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여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암환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는데 주력하는 간호를 제공하고, 불교 암환자에게는 주어진 상황에서 실행을 통한 내적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교에서는 문헌(Burnard, 1988)에서와 같이 내재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작업단계를 통하여 이론적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암환자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측면은 가장 최우선적인 요구라는 연구(조인향, 2002)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McMillan & Weitzer(2000)의 연구결과와 같이 비록 기능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힘들지만 절대자(하나님, 부처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사실이 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하여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사례2의 김00씨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육체적인 통증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냐. 수술 받는 고통? 항암제 투약 받는 고통? 그것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냐. ... 삶과 죽음의 어떤 기호에서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안됐지. 영적으로 더 절실하고. 완전히 그것이 전부였지.” 즉, 암환자는 영성의 회복을 통해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절실하고 급박한 영적 요구를 가지고 호소하는 암환자들의 영적 고통을 정확히 사정하고 이해하여 각 암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기본의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에서는 불교를 종교로 갖거나 종교가 없는 대상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유교적 또는 무속적 경향의 영성 속성을 현장작업단계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즉, 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인은 무속 신앙을 기저에 내포하고 있으며 유교적 실천주의자가 전체의 90% 이상이라는 이론적 단계에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에서 확인된 암환자 영성의 속성은 <그림 3>에서와 같이 타자를 통한 초월성, 미래지향성, 역동성이었다. 이 차원에 대한 문헌에서의 제시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현장작업단계에서의 사례1 강00씨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적인 절대자와의 관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수평적인 차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은 절대자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을 회복한 암환자라 할지라도 대상자의 경험과 영향요인에 의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반한 호스피스 센터의 진정한 돌봄은 결국 강00씨가 타인·이웃·외부환경과도 완전한 관계 회복을 경험한 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서도 암환자에 대한 영적 간호의 중요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불교에서의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은 <표 2, 그림2>에서 제시되었듯이 불교를 종교로 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서 확인되었다. 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Lee, 1998) 한국불교에서는 이웃에 대한 보시행위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영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으며, 영성이 깊은 자의 상징으로서 이웃에 대한 배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고통이 없는 극락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행과 수행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수평적 차원에 대한 실천인 이웃사랑과 배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

문에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을 산다는 Burnard(1988)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상대방에게 베푸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현장작업단계를 통하여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상호교환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 관계성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사례6 황00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헌(Burkhardt, 1989; 오복자, 강경아, 2000)에서 제시되었던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성을 나타내는 속성은 암환자 영성개념 분석을 위한 현장단계에서 관찰할 수 없었다.

3.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내적 에너지원, 삶의 의미와 목적의 속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차원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Frankle(1963)의 주장과 같이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생존해야 할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현장작업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이 처한 생의 위기에서 암환자들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려 하였으며, 자신이 더 살아야 할 의미를 찾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문헌(O'Connor, Wicker, & Germino, 1990)의 제시가 현장작업단계에서도 관찰되었다. 즉,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거 다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 결혼했다면 신혼 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야. ... 그냥, 내 맘대로 자유. 여행가고 싶을 때 가고. ... 여러 가지 못해봤으니까.”

이러한 의미추구와 희망은 새롭게 진단 받은 경우에는 의료진과 지지자원, 암의 재발시에는 믿음(신앙)이 그 원천이라는 Ballard 외(1997)의 연구와는 달리 현장작업단계에서는 새롭게 진단 받거나 재발 여부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각 대상자의 과거경험과 같은 특성에 따라 새롭게 진단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믿음(신앙)에서

그 의미와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사례2와 사례8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재발과 전이에도 불구하고 그 원천을 찾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에 대한 현장관찰에서 독특한 점은 가장 연령이 많은 사례 5 정00씨에게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속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연령의 차이는 있으나 자녀들이 아직 어린 경우에는 실존적 차원의 영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가정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적을수록 자신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원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교인 사례6의 황00씨에게는 절대자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수용하지 않으며,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인 차원의 속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자식에 두고 어린 자식을 위해 꼭 오래 살아야만 한다는 간절함을 보였다. 또한 불교를 종교로 가진 사례4 김00씨도 어린 자녀들을 놓고 죽는다면 큰 죄인이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꼭 살아야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의 경우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녀에게서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높을수록 고통이 심해진다는 강경아(1995)의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이들의 고통을 영성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영적 간호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은 종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암환자들은 하나님을 통해 주고자 하는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에 부합되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무교인 경우에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례8 육00씨는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방향, 방식으로 해야 할지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이러한 삶의 위기에 처한 암환자에게 간호사들이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측면의 간호보다도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단계를 통해 분석된 암환자의 영성의 차원은 절대자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의

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의 세 차원이 있으며 각 차원을 기반으로 한 암환자 영성의 속성은 각 개인의 종교, 연령, 과거경험, 가족에 대한 부담감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암환자 영성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적이고 독특한 과정’, ‘절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 ‘현실초월성’, ‘내적 에너지원’, ‘미래지향성’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암환자 영성의 선행요인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닌 ‘영’으로 볼 수 있으나 무교인 경우엔 인간의 영적 본질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활성화요인은 암의 진단, 암의 전이, 암으로 인한 전신적 쇠약이었다.

또한, 암환자에 있어서 영성의 지표는 종교에 따라 주체, 표현 양상, 그 목적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영성의 지표는 사랑, 절제, 자기 초월, 평안, 자아존중, 자기 수용, 희망 등의 내면적 지표와 이웃에 대한 봉사의 실천, 종교적 실천, 기도, 용서, 기쁨과 감사의 삶 등의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적 지표로 구분되었다.

그러므로, 재 정의된 암환자 영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이 지닌 본질인 ‘영’의 외적 발현으로서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추구하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성과 개인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지니며 절대자, 타인·이웃·외부환경, 의미추구와 관련되어 드러나는 절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며 현실 초월, 미래지향,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하는 내적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재 정의된 영성의 차원, 활성화요인, 속성, 지표

영성의 차원	활성화요인	영성의 속성	영성의 지표	
			내적 지표	외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 · 타인, 이웃, 외부 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진단, 압전의 전이(악화)를 통한 영적 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게 되고 강화되는 역동적이고 독특한 과정 · 절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 · 초월성 · 내적에너지 원 ·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사랑 · 절제 · 자기 초월 · 평안 · 자아존중 · 희망 · 자기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서 · 기도 · 종교적 실천 · 이웃에 대한 봉사 · 기쁨과 감사

B. 간호에의 적용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 단계를 통한 암환자 영성 개념분석을 통하여 암환자의 영성이 표현되는 방법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관점이 서로 다른 각 종교, 연령, 과거 경험, 가족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암진단과 전이라는 생의 고통 속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암진단과 질병의 악화는 영적인 위기인 동시에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계기임을 인식하고 대상자들의 영적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의 노력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작업단계를 통하여, 암환자들과의 면담을 하면서 단지 그들과 ‘함께 있어주기’와 그들의 문제를 ‘경청’ 해주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간호사들이 영적인 측면에 대한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은 영성에 대한 이해부족, 간호사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 자신은 먼저 영적 간호가 간호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간

호사의 의무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영적 측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각 대상자들의 영성 표현 양상을 정확히 사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영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또한, 이론과 연구에 근거한 영적 간호중재를 통해 대상자들의 영성을 강화하려는 간호 실무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C. 연구의 의의

전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 대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간호 연구자, 이론가, 실무가 모두가 동의하지만 어떻게 각 대상자들의 영적 요구를 사정하고, 적절한 영적 간호중재를 제공하며, 그 효과를 측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간호시점에서 영적 간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영성’을 이론적 단계와 현장 단계를 동시에 이용하는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종교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간호현장에서 종교의 개념과 혼용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영적 간호의 기본개념인 영성 개념을 현장관찰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영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둘째, 많은 한국인 암환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영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셋째, 영적 위기에 처한 암환자의 영적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총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간호학에서 영적 측면에 대한 간호가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영적 간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영성'에 대한 개념정립과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시도한 연구이다. 특히 죽음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심한 삶의 위기에 있는 암환자에게 있어서 영적 간호제공은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단계와 현장 작업단계를 통하여 암환자에 있어서의 영성의 차원, 선행요인, 속성, 지표를 파악하고 암환자 영성을 재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Schwartz-Barcott, Kim(1986)이 제시한 혼종모형을 이용하여 기독교, 불교, 무교를 가진 암환자를 대상으로 영성개념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암을 진단 받고 투병중인 30세 이상의 암환자로 항암요법을 받거나 질병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각 종교를 대표한다고 암병동 수간호사의 추천한 기독교 2명, 불교 3명, 무교(無敎)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병원 관계자의 승낙을 얻은 후, 2002년 4월 초부터 6월 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연구자의 연구의도를 밝히고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이론적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암환자 영성의 차원, 속성, 지표를 제시하고 작업적 정의를 내렸으며, 현장작업단계에서는 Schatzman, Strauss(1973)의 기록체계인 관찰기록, 이론적 기록, 방법론적 기록을 이용하여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자료를 조직화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사례별로 참여관찰기록과 심층면담내용을 삽입하여 현장관찰을 통한 종교별, 사례별 암환자 영성의 차원, 속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종분석단계에서는 이론적 단계에서와 현장작업단계에서 파악된 암환자 영성의 차원에 따른 속성과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종교를 비롯한 각 개인의 특성에 따른 영성 속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암환자 영성의 차원, 속성, 지표를 제시하고 암환자 영성을 재 정의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환자 영성의 차원

- 절대적 존재와 관련된 수직적 차원
- 타인·이웃·외부환경과 관련된 수평적 차원
- 의미추구와 관련된 실존적 차원

2. 암환자 영성의 속성

-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적이고 독특한 과정
- 절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
- 현실초월성
- 내적 에너지 원
-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
- 미래지향성

3. 암환자 영성의 지표결과

1) 내면적 지표

- 사랑
- 절제
- 자기 초월
- 평안
- 자아존중
- 자기수용
- 희망

2) 행동적 지표

- 용서
- 기도
- 종교적 실천
- 기쁨과 감사
- 이웃에 대한 봉사

4. 이상과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정의된 암환자 영성의 재정 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이 가진 본질인 ‘영’의 외적 발현으로서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 더 찾고 강화될 수 있는 역동성과 개인의 종교, 연령, 과거경험, 가족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 독특하게 표현되는 절대자, 타인·이웃·외부환경, 의미추구와 관련된 차원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와의 관계성 또는 자신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며 현실 초월, 미래지향,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하는 내적 에너지원이다.

B. 제언

암환자 영성에 대한 개념분석 결과를 통해 암환자의 영적 간호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암환자의 질병단계와 재발여부에 따른 영성 과정을 후향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암환자의 영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양적 연구가 요구된다.
3. 독특한 각 개인의 영성을 반영하여 영성의 정도를 정확히 사정하기 위한 도구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4. 영성 개발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5. 영성의 강화가 암환자의 신체·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양적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 강경아(1995). 고통개념분석과 개발-혼중모형방법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26(2), 290-303.
- 김강미자 & 이병숙(1998), 영성(Spirituality)의 개념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0(3), 460-467.
- 김경재(1992). 종교 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서울 : 다산 글방.
- 김경재 외(1998). 종교와 영성.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서울 : 한들.
- 김양운(1999).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 21세기에 교회에서 요구되는 기독교 영성,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서울.
- 김후자(2001). 한국인의 영적 건강 속성에 관한 탐색-Focus group연구방법 적용.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 이원섭 역(2001). 불교개론. 서울 : 현암사
- 민소영(1996). 암환자의 영적건강 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간호과학, 7, 127-142.
- 박수덕(1999). 한국 무교(巫敎)의 신관(神觀)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서울.
- 박일영(1989). 종교간의 갈등과 대화, 무속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종교·신학 연구(2). 서강대학교.
- 보건복지부(2000). 한국인 암 등록 조사자료 분석 보고서.
- 성서대백과사전(1986). 제 9권. 서울 : 기독교문사.
- 새성경신학대사전(1999). 새성경신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아카데미리서치.
- 오복자(1997). 암환자의 영적안녕과 삶의질과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9(2), 189-197.
- 오복자, 강경아(2000). 암환자의 부담감 및 삶의 의미와 고통과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2), 331-341.
- 오복자, 강경아(2000). 영성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5), 1145-1155.
-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2001). 한국어판 영성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연구. 중앙간호학회지, 1, 196-179.

- 오복자, 강경아(2001). 영성 개념분석- 혼종모형 적용. 미출판
- 용진선(1998). 말기질환에 있어서 영성(Spirituality in terminal illness): 이론의 다른 견해 (An alternative view of theory). 호스피스 논집, 3, 66-74.
- 유동식(1985).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윤원철(1998).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 보자. 서울 : 시공사.
- 이기영(1999). 불교개론 강의(하권). 서울 : 한국불교연구원.
- 이명수(1995). 치유선교론. 서울 : 나임.
- 이상준 역(2002). 인생 예수와 부처의 위대한 대화.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 이승녕(2001). 표준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 이원희(1988). 영적 간호. 대한간호, 27(1), 21-27.
- 이원희(2000). 말기 암환자의 총체적 고통.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3(1), 60-74.
- 이원희, 김명실, 김상희(2001). 암환자의 영적건강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2), 233-246.
- 이혜숙(1996). 임상사회복지에서의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희승(2001). 국어대사전. 서울 : 민중서관.
- 장대현(1999). 한국교회의 영성과 교육. 서울 : 타문화권 목회연구원.
- 조인향(2002). 암환자 인식에 관한 연구:간호사, 의사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조형경(1996). 바리공주 무가의 기호학적 분석.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대구.
- 종교학대사전(2001). 종교학 사전 편찬위원회. 서울 : 한국사전연구사.
- 철학대사전(1974). 서울 : 학원사.
- 지기순(1991). 암환자의 영적간호요구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최준식(2000).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무교 유교 불교. 서울 : 사계절.
- 한영해설성경(2000). 서울 : 아가페.

- 금성출판사 국어사전(2001). www.yahoo.co.kr
- Ballard, A., Green, T., McCaa, A., & Logsdon, MC. (1997). A comparison of the level of hope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and recurrent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24(5), 899-894.
- Baldacchino, D., & Draper, P.(2001). Spiritual coping strategies: a review of the nursing research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4(6), 833-841.
- Ballard, A., Green, T., McCaa, A., & Logsdon, M. C. (1997). A comparison of the level of hope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and recurrent cancer population. Oncology Nursing Forum, 24, 899-904
- Burkhardt, M. A.(1989),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69-77.
- Burkhardt, L. (2001). Spirituality and religiousness : Differentiating the diagnoses through a review of the nursing literature. Nursing Diagnosis, 12(2), 45-54.
- Burnard, P. (1988). The spiritual needs of atheists and agnostics. The Professional Nurse, 4(3), 130-132.
- Cawley, N. (1997). Towards defining spirituality. An exploration of the concept of spiritu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alliative Nursing, 3(1), 31-36.
- Chiu, L. (2000). Lived experience of spirituality in Taiwanese women with breast cancer.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2(1), 29-53.
- Dombeck, M., & Karl, J. (1987). Spiritual issues in mental health care. Journal of Religion & Health, 26, 183-197.
- Doyle, D. (1992). Have we looked beyond the physical psychosocial?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7(5), 302-311.
- Dyson, J., Cobb, M., & Forman, D.(1997), The meaning of spirituality: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 1183-1188.
- Elkins, D. N., James, L., Hughes, L. L., Andrew, J., & Cherryl, S.(1988), Toward a humanistic-phenomenological spirituality-definition,

- descrip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8(4), 5-17.
- Emblen, J. D. (1992). Religion and spirituality defined according to current use in nursing literatur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8(1), 1992, 41-47.
- Farran, C. J., Fitchett, G., Quiring-Emblen, J. D., & Burck, J. R.(1989), Development of a model for spiritual assessment and intervent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8, 185-194.
- Fish, S., & Shelly, J. A. (1978). Spiritual care-nurse's role. New York. IVP.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Pocket books.
- Germino, B. B., Fife, B. L., & Funk, S. G. (1995). Cancer and the partner relationship: What is its meaning? Seminars in Oncology Nursing, 11, 43-50.
- Goddard, G. (1995). Spirituality as integrative energy: a philosophical analysis as requisite precursor to holist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 808-815.
- Golberg, B. (1998). Connection: an exploration of spirituality in nursing ca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836-842.
- Goodloe, N. & Arreola, P. M.(1992). Spiritual Health : Out of the Closet.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3(4), 221-226.
- Hatch, R. L., Burg, M. A., D. S., Naberhaus, L. K., & Hellmich, L. K. (1998). The spiritual involvement and beliefs scal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new instrument. Journal of Family Practice, 46, 476-86.
- Hasse, J. E., Britt, T., Coward, D. C., Leidy, N. K., & Penn, P. E.,(1992). Simultaneous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 perspective, hope, acceptance and self-transcendence.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2), 141-145.
- Helminiak, D. A. (1996). The human core of spirit of spirituality; mind as psyche and spirit.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ighfield, M. F. (1992). Spiritual health of oncology patients—nurse and patient perspectives. Cancer Nursing, 15(1), 1-8.
- Highfield, M. F. (2000). Providing spiritual care to patients with cancer.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4(3), 115-118.
- Hiatt, J. F. (1986). Spirituality, medicine and healing. Southern Medical Journal, 79(6), 726-743.
- Jenkins, R. A., & Pargament, K. P. (1995). Religion and spirituality as resources for coping with cancer.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13(1/2), 51-74.
- Lee, H. S. (1998). A Critique of Korean Attitudes towards Suffering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Professional Caregivers, DTC Dissertation of the Master of Christian Studies Degree. Singapore.
- MacQuarrie, J. (1992). Paths in spirituality(2nd ed.). Harrisburg, PA: Morehouse.
- Mansen, T. (1993). The spiritual dimension of individuals: Conceptual development. Nursing Diagnosis, 4(4), 140-147.
- Martolf, D. S., & Mickley, J. R. (1998). The concept of spirituality in nursing theories: differing world-views and extent of focu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294-303.
- McMillan, S. C., & Weitzer, M. (2000). How problematic are various aspects of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ancer at the end of life? Oncology Nursing Forum, 27, 817-823.
- McSherry, W. M. & Draper, P. (1997). Spiritual dimension: why the absence within nursing curricula? Nurse Education Today, 17(5), 413-417.
- McSherry, W. M. (1998). Nurses' perceptions of spirituality and spiritual care. Nurse Stand, 13(4), 14-20.
- McSherry, W. M., & Draper, P. (1998). The debates emerging from the literature surrounding the concept of spirituality as applied to nursing.

-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4), 683-691.
- Meraviglia, M. G.(1999). Critical analysis of spirituality and its empirical indicators.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7(1), 18-33.
- Mickley, J. R., Soeken, K., & Belcher, A. (1992).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ness and hope among women with breast cancer.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 267-272.
- Miller, M. A. (1995). Culture, spirituality, and women's health. JOGNN, 24(3), 257-263.
- Moberg, D. O. (1997). Religion and aging. In: Ferraro K.(ed)Gerontology: perspectives and issues, 2nd edn. Springer, New York, pp 193-220.
- Muldoon, M., & King, J. (1991). A spirituality for the long haul: Response to chronic illness. Journal of Religion & Health, 30, 99-107.
- Mytko, J. J., & Knight, S. J. (1999). Body, mind and spirit: Towards the integration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in cancer quality of life research. Psycho-oncology, 8, 439-450.
- Nagai-Jacobson, M. G.,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Cornerstone of holistic nursing practice. Holistic Nursing Practice, 3(3), 18-26.
- O'Brien, M. E. (1982). Religious faith and adjustment to long-term haemodialysi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1, 68-80.
- O'Connor, A. P., Wicker, C. A., & Germino, B. B. (1990). Understanding the cancer patients' search for meaning. Cancer Nursing, 13(3), 167-175.
- Olumide, S. (1998). Spiritual care. Nursing management, 5(1), 8-9.
- Paloutzian, R. F., & Ellison, C. W.(1983).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 Reed, P. G.(1992). An emerging paradigm for the investigation of spirituality in nursing.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5, 349-357.
- Rogers, D. L & Knafl, K. A. (1993).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 New York : W.B. Saunders.

- Ross, L.(1994), The spiritual dimension: its importance to patients' health,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and its important for nurs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ents, 32(2), 457-468.
- Ross, L. (1996). Teaching spiritual care to nurses. Nurse Education Today, 16, 38-43.
- Schnoll R. A., Harlow L. L., & Brower L.(2000). Spirituality, demographic and disease factors, and adjustment to cancer. Cancer Practice: a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Cancer Care, 8(6), 298-304.
- Seaward, B. L. (1991). Spiritual wellbeing : A health education mode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2(3), 160-169.
- Stoll, R. I. (1989). The essence of spirituality. In Spiritual Dimensions of Nursing Practice(Carson V. B. ed.), W.B. Sanders Co.,Toronto.
- Underwood-Gordon L., Peters DJ., Bijur P., & Fuhrer M.(1997). Roles of religiousness and spirituality in medical rehabilitation and the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ommentary.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76(3), 255-7.
- Taylor, E. J.(1993). Factors associated with meaning in life among people with recurrent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9, 1399-1405.
- Taylor, E. J., Highfield, M., & Amenta, M. A.(1994). Attitudes and beliefs regarding spiritual care., Cancer Nursing, 17(6), 479-487.
- Taylor, E. J., Amenta, M., & Highfield, M. (1995). Spiritual care practices of oncology nurses. Oncology Nursing Forum, 22(1), 31-39.
- Thomas, J., & Retsas, A. (1999). Transacting self-preservation : a grounded theory of the spiritual dimension of people with terminal cancer.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6(3), 191-201.
- Walton, J.(1996), Spirituality relationships: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4(3), 237-50.

ABSTRACT

Concept Analysis of spirituality in cancer patients

- focusing on Christianity, Buddhism, and Atheism and Agnosticism -

Lee, Mi-Ra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ll nurses should provide spiritual care for their clients as holistic persons consisted of body, mind, and spirit.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care spiritually for cancer patients facing the crisis of their lif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spirituality which is one of the basic concept for spiritual care in cancer pati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eight persons; 2 Christians and 3 Buddhists, and 3 persons who do not have any religion. They were cancer patients, and in-patients recommended by the head-nurse of an oncology department because they represented adherents to these different religious faith.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9, 2002 to June 4, 2002 through using the method of in-depth inter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the participants' consent.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on audio tapes and then transcribed. There were 3 phases for data analysis- Theoretical phase, Fieldwork phase, Final analytical phase- according to the Hybrid Model suggested by Schwartz-Barcott, and Kim(1986).

In the Fieldwork phase, the data of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the content of the in-depth interviews were presented and then enumerated as dimensions, attributes, and outcomes of spirituality in the cases. Also in final phase, the attributes and outcomes of the Theoretical phase and the data of fieldwork

phase were compa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the spirituality of cancer patients and then,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religion, age, past experiences and burden of family were discussed.

The final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

1. Dimensions of spirituality in cancer patients

- The vertical dimension connected with the absolute being
- The horizontal dimension related to the other person · neighbor · environment in outside
- existential dimension related to seeking of meaning

2. attributes of spirituality in cancer patients

- dynamic process strengthened in suffering due to struggle with cancer
- connectedness with the absolute being or will and believe of oneself
- transcendence of reality
- meaning and purpose of life
- future oriented

3. outcomes of spirituality in cancer patients

1) intrinsic outcomes

- love
- self-control
- self-transcendence
- peace
- self-respect
- self-acceptance
- hope

2) behavioral outcomes

- forgiveness
- pray

- religious practice
- service to neighbor
- joy and gratitude

Therefore, the new definition of spirituality in cancer patients based on above outcomes was as follows; Spirituality is an expression of 'spirit' which is entity of human being, having a dynamic process strengthened in suffering due to struggle with cancer and having a unique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religion, age, past experiences, burden of family. Spirituality is internal energy manifested in 3 dimensions- related to the absolute being, other person · neighbor · environment and seeking of meaning- connectedness with the absolute being or will and believe oneself, transcendence of reality, future oriented, and seeking meaning and purpose of lif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n individual spirituality is manifested differently by his(her) religion, age, past experiences and burden of family, and able to be strengthened in suffering due to struggle with cancer. Therefore, nurses should recognize that diagnosis and deterioration of cancer is not only a spiritual crisis but a good chance for spiritual growth and should try to assess the spiritual problems of their clients.

Key words : cancer patients, spirituality, concept analysis